

## 소식 · 안내

- 40 월간브리핑
- 48 5월 가정의달 맞이 한우할인판매 행사 전국서 개최
- 50 시사상식 필리버스터, 관피아

## 특집

### 고곡물가 시대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

- 54 프롤로그
- 55 농식품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사료비 절감 방안  
백열창 연구사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 59 고곡물가시대 한우농가 경영 안정화방안  
안희경 기자(농수축산신문)
- 64 흔들리지 않는 한우산업을 위한 선택  
김웅 이사  
(카길애그리퓨리나 축우전략마케팅부)
- 70 사료가격 폭등기 과거에는 어떤 정책이 있었을까?  
김재민 편집장(농장에서식탁까지)

## 기획

- 74 CPTPP 집회 현장 스케치
- 78 탐방 ① 최고의 한우 번식농장을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  
- 미소농장 농장 홍슬아 대표
- 84 탐방 ② 한중에스에스, 고곡물가시대 든든한 파트너  
- 아침목장 김영길 대표
- 90 시 · 도지회 든든한 한우산업 지킴이, 부산경남도지회  
-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
- 92 우수지부 작지만 강한 지부, 거제시지부  
- 부산·경남도지회 거제시지부

## 사양 · 컨설팅

- 96 원포인트레슨 합천축협 등록우 전자경매시장을 가다!  
이종현 사무국장(한우협동조합연합회)
- 102 수의칼럼 한우 키포인트 이것만은 꼭!  
소앤소 김재경 원장
- 106 컨설팅 컨설팅을 통한 한우의 피부병 및 대응방안  
지엠디컨설팅

## 오피니언

- 110 칼럼 ① 기업자산 증여세 연부연납특례제도 활용 체크포인트  
박 철 수석팀장(삼성생명 강남법인)
- 114 칼럼 ② 탄소중립과 생산비 절감 두 마리 토끼 잡기  
윤석준 박사  
(농협사료 마케팅본부 R&D센터)

## 연재 · 정보

- 118 우리한우판매점 미경산 암소 전문 판매점 남해 맛집 '암소한마당'
- 122 4월 한우동향분석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134 4월 한우정보



## 「선제적 수급조절」 「철저한 차단방역」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곧 꺼질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그만, 이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앞장 섭시다.



## 내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 모두 동참하는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철저한 차단방역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 및 한우K-방역에 참여해주신 전국의 한우농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 월간브리핑

2022년 4월 협회 주요활동



## 한우산업 발전 기여 감사패 전달 (4월~계속중)

### ○ 한우육성조례 발의 시·도의원

-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
- 전남도의회 곽태수 의원
- 경북도의회 임무석 의원
- 울산시의회 윤정록 의원

### ○ 청탁금지법 상향 개정 관련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

### ○ 한우산업 발전 기여 국회의원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충남 홍성군예산군)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경북 상주시문경시)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경북 영천시청도군)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북 김제시부안군)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경북 안동시예천군)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전남 나주시화순군)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경남 김해시갑)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시)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경기 수원시정)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4.1 울산 윤정록 시의원



4.14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4.15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4.19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4.27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4.28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 울산 산악영화제 업무협약 4.2(토)

○ 지속적인 영화제 한우 홍보 업무협약



## 2022년 제2차 긴급 이사회 4.4(월)

○ (보고사항) 임원 변동 사항

- 여성/청년 분과위원장 임기 만료 ('22.2.28)로 인한 변동
- 감사 임기 만료 및 신규 감사 선출로 인한 변동 (박완옥 감사, 임종선 감사)
- 강원도 추천 이사 변동 (이상혁 사퇴 → 김상록)
- 충북도 추천 이사 변동 (함인영 사퇴 → 현재 공석)
- 산불 피해 현황 및 성금 모금 현황



1) 한우농가 산불 피해 현황

(1) 산불 발생 : 2022. 3. 4.(울진, 삼척) 3. 5.(강릉, 동해)

(2) 특별재난지역(4개 시군구) :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도지회		가축	시설			비고
		한우	축사	퇴비사 창고	기타 (조사료, 기계 등)	
경북	울진	104두 (농가 15호 폐사 12두, 상태불량 92두)	12호 (전파 1, 반파 11)	퇴비사 1호 창고 1호 (농가 1호)	조사료 2,500롤 기자재 12대*	*기자재 (급여기, 급수기 절단기, 베일러, 램기, 소독기, 트랙터) 등

도지회		가축	시설			비고
		한우	축사	퇴비사 창고	기타 (조사료, 기계 등)	
강원	삼척	-	-	-	-	900여두 연기흡입
	강릉	-	-	-	-	
	동해	-	3호 (602m)		조사료 40톤 (3농가)	
계		104두 (농가 15호)	15호	2호 (농가 1호)		

2) 성금 모금 현황(도지회, 중앙회 합계)

- (1) 성금모금명 :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가에 힘이 되어 주세요.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 (2) 모금 방법 : 중앙회, 도지회, 시·군지부, 한우농가 등 자율 모금
- (3) 모금 기간 : 2022. 3. 8 ~ 3. 15(3. 24일까지 입금분 접수)
- (4) 총 모금액 : 152,882,400원(중앙회 110,862천원, 강원·경북 42,020천원)

### 산불 피해 성금 모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중앙회 모금액(원)	도지회 모금액(원)	계	중앙회 모금액 비율(%)	총합계 비율(%)
중앙회 임직원 (회장·부회장·감사포함)	22,052,400	-	22,052,400	19.9%	14.4%
서울인천경기도지회	8,520,000	-	8,520,000	7.7%	5.6%
강원도지회	300,000	3,800,000	4,100,000	0.3%	2.7%
충북도지회	2,100,000	-	2,100,000	1.9%	1.4%
대전세종충남도지회	14,480,000	-	14,480,000	13.1%	9.5%
전북도지회	28,680,000	-	28,680,000	25.9%	18.8%
광주전남도지회	11,610,000	-	11,610,000	10.5%	7.6%
대구경북도지회	-	38,220,000	38,220,000	0.0%	25.0%
부산경남도지회	14,670,000	-	14,670,000	13.2%	9.6%
울산시지회	5,250,000	-	5,250,000	4.7%	3.4%
제주도지회	2,600,000	-	2,600,000	2.3%	1.7%
한우자조금	600,000	-	600,000	0.5%	0.4%
계	110,862,400	42,020,000	152,882,400	100.0%	100.0%

○ (의결사항) CPTPP 관련 대응 방안

- 4월 13일 예정된 한국농축산연합회 여의도 CPTPP 반대 농어민 집회에 참여 의결.
- 지부별 자가용 1대 이상 인원 동원.



## ○ (협의사항) 사료가격 안정화

- (중앙회) 축단협 차원의 성명서 발표, 사료가격 문제 언론 보도, 농식품부 방문(축산국장) 대책 촉구함
- 국민공감대 형성 및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중앙회 차원의 대정부 및 대국회 지원대책 건의 활동 주력
- 집회 등 실행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

## 한우수출분과위원회 4.12(화)

### 논의내용

- 홍콩사태,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수출물량 감소(20년 48톤 → 21년 38톤)
- 한우 사육두수 증가, 수급안정 위한 한우수출의 중요성 대두
-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국내 준비 등
- 수출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수출업체 지원
- 분기별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운영 방침 논의 등

### 의결내용

- 40℃ 급속동결실에서 냉동한 제품에 한해 냉동 수출 가능
- 수출되는 한우 냉동육의 품질이 현지까지 신선하게 유지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 등 세부 가이드라인 추가 논의



## CPTPP반대 입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전달 4.13(수)

- CPTPP는 개방수준이 농축임산물 96.3%, 수산물 100%에 달하는 메가FTA
- 사실상 '농어촌 말살 선언'과 다름없음
-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조치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 우려
- 농어민의 생존권, 국민의 건강권, 국가의 식량주권을 위해 CPTPP 가입 추진 중단요청
-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대책 수립 건의
- 사료값폭등 특단대책 수립 건의
- 국제곡물가격 지속상승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사료가격 안정 불투명(20 대비 배합사료 30%, 조사료 50% 이상 폭등)하기 때문에, 사료가격안정자금 설치, 사료곡물 비축제도 등 사료가격 폭등, FTA 피해 관련 농가보호장치 마련, 수입조사료 쿼터 확대, 장기적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지원



## CPTPP반대 농어민대회 4.13(수)

### ○ 한우산업 핵심이슈

#### - 동식물검역(SPS)

- ▶ 발생 예측 문제 : 현재 가축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축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있지만, CPTPP에선 질병이 발생한 지역만 수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성 문제 대두 가능(수출용이)

#### - 원산지 규정

- CPTPP 협정상 육류(HS 02류)의 원산지 기준은 모든 육류에 대해 도축을 통한 원산지변경을 허용
- ▶ 발생 예측 문제 : 캐나다에서 생산된 수입쇠고기가 국내에서 가공된다면 국내산 표기 가능

### ○ 요구사항 (선대책 후 체결)

- 여러 연구 분석 결과,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 발생은 명확,
- 정부는 FTA 체결 시에도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인 농축산업의 피해 감수만 요구.
- (요구사항) 농업 분야별 피해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업이 나아갈 대책 마련 후 체결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산불피해 성금 전달 4.14(목)

- 한우농가 경북강원 등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성금 모금액 전달
- 모금액 총 111,362,400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달액: 97,952,400원
- 성금 전달 외 기타 현물지원
  - 강원도 조사료 지원액: 12,410,000원
  - 강원지역에 선풍기 20대
  -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농가 급수기 30대
  - 전남지역 한우농가가 기부한 조사료(약 6,400만원 상당)



## CPTPP관련 정운천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 간담회 4.15(금)

-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 정운천 의원에게 농축산업계의 입장을 전달
- 건의사항
  - CPTPP 관련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 요청
  - 사료가격 폭등에 대한 산업 전반의 위기 설명 및 차액보전, 사료안정기금 마련 건의
  - 캐나다산 군납 쇠고기 납품 상황 지적 및 자급율 감소 방지 당부
- 정운천 의원 답변 사항
  - 농업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노력
  - 지방이 소멸되는 위기 속에 지속적인 농업을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 노력



##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간담회 4.15(금)

- 농특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공유
  - 공익형 직불제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 지역상생형 공공조달체계 구축으로 군급식 체계 개선
  - 탄소중립 실행체계 구축 방안
- 협회 의견 전달사항
  -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농정과제를 제시하는 농특위 창구 역할 당부
  - 재해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 확대 등 현장 농민의 목소리가 반영 건의

## 음성군지부 퇴비유통조직 설명회 및 교육 4.20(수)



## 경북축산연구소 강의 4.21(목)

- 한우산업의 가치와 우리 협회의 역할을 교육생에게 강의함





# 5월 가정의달 맞이 한우할인판매 행사 전국서 개최

한우고기 최대 40% 할인 및  
한우숯불구이 축제 열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한우농가들이 한우고기 할인판매와 한우숯불구이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 우리 협회는 전국 시·도지회 조직망을 활용하여 대규모 온·오프라인 한우 소비촉진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했다. 공통적으로 20~40%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충북과 전북, 부산경남,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한우숯불구이 축제도 열린다.

전국적인 한우할인판매 행사는 ▲울주군청 주차장(3~4일, 울산광역시지회) ▲부산 신세계아울렛 주차장(4~8일, 부산경남도지회)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6~8일, 전북도지회) ▲서귀포 한우명품관 일대(6~8일, 제주도지회) ▲서울 청계광장(19~21일, 서울 중앙회) ▲춘천시청 관장 주차장(20~22일, 강원도지회) ▲청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27~29일, 충청도지회)에서 5월 한 달 내내 펼쳐진다.



5.4~8 | 경남도지회 숯불축제구이



5.3~4 | 울산시지회 할인판매행사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뿐만 아니라 시식회, 현장 SNS이벤트, 경품증정 등 다양한 대면 행사가 마련됐다.

김삼주 회장은 “한우농가들이 한우와 함께하는 국민의 행복한 일상 회복을 응원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연인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 전국 어디서든 한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별 행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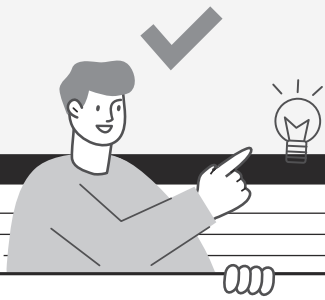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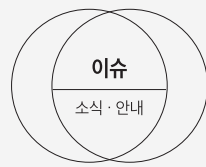
도	행사기간	행사장소	행사내용
제주 (제주)	4.29(금)~5.1(일)	제주 시민복지타운 (제주시 도농동 582)	할인판매, 숯불구이
울산	5.3(화)~5.4(수) 10:00~17:00	울주군청 1층 입구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할인판매, 이벤트
경남	5.4(수)~5.8(일) - 행사 11:00~21:00 - 기념식(5.5) 17:00	부산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광장 (기창군 장안읍 정관로 1133)	할인판매, 숯불구이, 이벤트
전북	5.6(금)~5.8(일) 09:00~21:00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	할인판매, 이벤트, 한우불고기피자 시식
제주 (서귀포)	5.6(금)~5.8(일) 09:00~20:00	서귀포 한우명품관 주차장 일대 (서귀포시 일주동로 8421)	할인판매
강원	5.20(금)~5.22(일) 10:00~18:00	춘천시청 광장 주차장 (춘천시 시청길 11)	할인판매, 라이브커머스, 학생 요리대회, 시식회
충북	5.27(금)~5.29(일) 10:00~20:00	청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65)	할인판매, 이벤트, 시식회



5.6~8 | 전북도지회 숯불축제구이







## 필리버스터

### filibuster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다.

한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에는 검찰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막고자 시도되었다.



## 관피아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공기업이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이른바 전관예우라 하여 유관 기관에 취업한 퇴직 고위공무원이 각종 사업에서 특혜를 받거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이며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관피아**는 교피아, 모피아, 세피아, 법피아 등으로 그 용어가 세분화 되었는데, **교피아**는 교육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모피아**는 기획재정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세피아**는 국세청·관세청 등 세무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법피아**는 검찰, 판사 등 법조계와 마피아의 합성어다.



#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 ◆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 ◆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27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하 380kg이상 600kg이하	26개월령 이상 60개월령 이하 300kg이상 550kg 이하	※ 등심단면적 기준 (거세) 86cm <sup>2</sup> 이상 110cm <sup>2</sup> 이하 (암소) 76cm <sup>2</sup> 이상 100cm <sup>2</sup> 이하
가격적용 기준	농협 음성공판장 화,수,목,금 평균가	음성공판장 화,수,목 평균가	
부산물	두·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근출혈 보상보험 두당 8,500원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출하장려금	(거세, 두당 7만원) 도체중 420kg~560kg이하, 월령 30~34개월이하, 등심단면적 86cm <sup>2</sup> 이상 (암소, 두당 12만원) 도체중 350kg~550kg이하, 월령 28~60개월이하, 등심단면적 76cm <sup>2</sup> 이상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급여사료명	어린송아지 대한한우	육성기 대한한우										비육전기 대한한우								비육후기 대한한우						비고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출하체중 750kg 이상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조사료	건초	자 유 채 식										2.0	2.0	1.0												
	볏짚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 육 구 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 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 중 (kg)			130 ~150	150 ~170	170 ~190	190 ~210	210 ~230	230 ~250	250 ~265	270 ~285	290 ~305	310 ~325	330 ~345	350 ~365	370 ~385	390 ~405	410 ~425	430 ~445	450 ~465	470 ~485	490 ~505		510 ~51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1일사료 급여량 (kg)	구 분		번식용 증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섭취 량	배합 조사료	2 ~ 3 kg							3 ~ 4 kg													4 kg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대한한우  
어린송아지사료

2~6개월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 천연물질에 의한 항병력 강화
-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몰이기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어린송아지	20.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0.0	0.9	1.5	70.0

고품질  
대한한우

번식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번식우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 발정과 수태율 최적화를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번식우	14.0	2.0	15.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8	1.2	68.0

고품질  
대한한우

육성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육성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적정에너지 공급
-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육성기	15.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0.0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전기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비육전기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 반추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전기	13.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3.0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후기

25kg

대한한우협회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 23개월~28개월

-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후기	12.0	2.5	20.0	
조화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5.0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아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펙제

사료가격 투명화 / 합리적 가격 / 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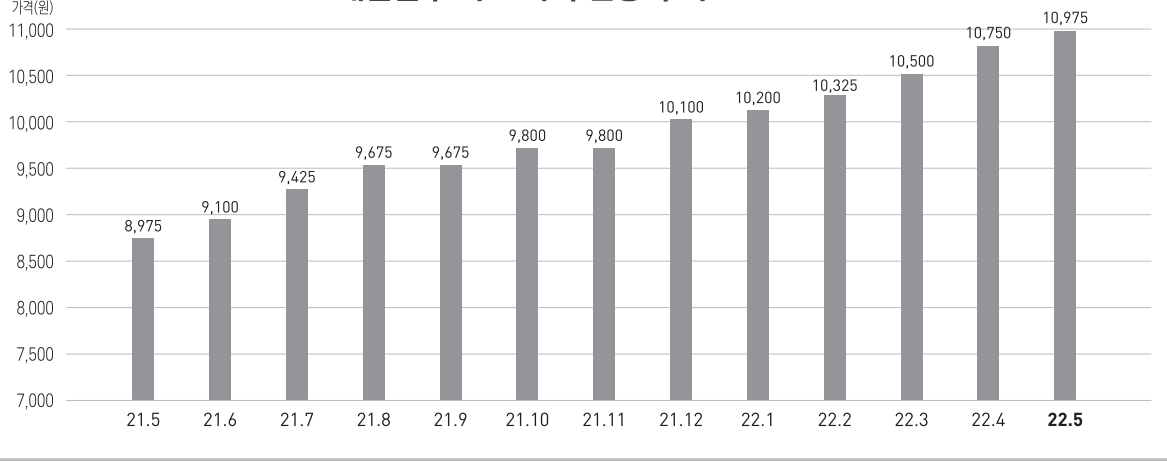
22년 5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어린송아지	번식우	육성	비육전기	비육후기
14,225	10,625	10,975	10,975	11,225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협회전용사료 문의 ☎ 02-525-1053 (내선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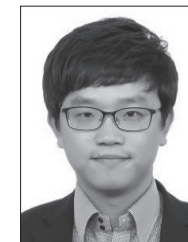
# 고곡물가 시대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

국제 곡물 가격의 연이은 상승과 한우 가격 내림세로 전환되면서 농가들이 경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비는 올라가고 농가들의 수취가격은 하락하는 불황이 농가들 앞에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는 위기에 맞는 경영 방법이 필요하고, 더불어 정부도 생산비 폭증으로 어려움에 부딪친 농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여 왔다. 이에 한우마당 5월호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 폭등과 그에 따른 사료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을 위해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여러 전문가를 통해 제언하고, 더불어 과거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 살펴보고 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특집 ①

## 농식품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사료비 절감 방안



글. 백열창 연구사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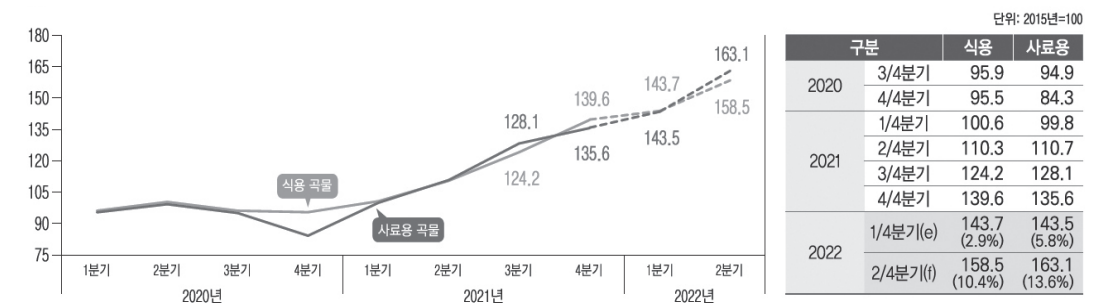
2020년 4분기 이후로 조금씩 상승하였던 국제 곡물가격은 코로나 19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국제곡물 4월호에 따르면 2022년 2/4분기 사료용 곡물수입단가 지수를 163.1(2015년=100)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0년 4분기 84.3에서 약 2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원료사료가격 상승은 배합사료 가격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우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국제곡물가 파동 및 한우 시세 하락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TMR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최근 배합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농식품부산물 활용 자가 TMR 제조 기술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TMR과 영양소 요구량, 처음 자가 배합사료 제조 시 자가TMR 및 영양소 요구량, 농가 적용사례, 농식품부산물 활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제시할 예정이다.

곡물 수입단가지수 동향 및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4월호)



주: 품목별 식용, 사료용의 국내 수입액 가중치(최근 5개년 평균) 및 IHS Global Insight 대미환율 전망치를 이용하여 산출함. 괄호 안은 전 분기 대비 증감률  
자료: KREI 식품·배합사료물가전망모형



## 2. 섬유질배합사료와 영양소 요구량?

섬유질배합사료는 일명 TMR 불리며, 조사료, 농후사료,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해서 영양소 요구량에 맞게 혼합해서 급여하는 사료를 말한다. TMR의 장점은 소의 반추위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반추위의 발효 최적화로 소화율을 극대화하고 육질을 고급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소에게 값이 싸면서도 영양소 요구량을 맞춘 사료를 만드는 것이다. 농가에서 이 부분을 스스로 계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사료배합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3. 배합비 작성의 중요성

한우농가 교육 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미강, 비지 등을 얼마나 사료에 급여해야 되나요?”이다. “10% 넣으면 된다.”라고 간략하게 답변해도 되지만, “10%를 넣으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를 뒤이어 묻는다. 중요한 부분은 전체를 고려한 배합비율을 작성해야 한다. 농가에서 직접 배합비를 작성하기는 어렵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주는 배합비 프로그램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필자도 배합비 프로그램을 도움 없이는 배합비 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 한우 TMR 배합비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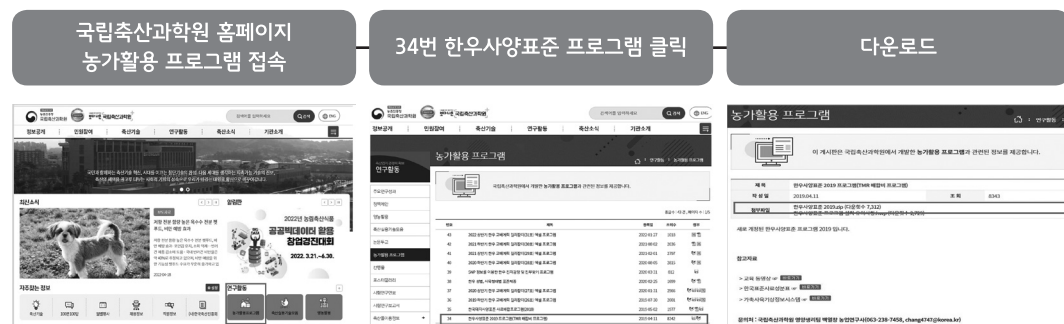
- ① 성장단계별(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단백질, TDN, 조사료비율, 칼슘, 인 등 영양소 요구량 선정
- ② 곡류, 강피류, 유박류, 농식품부산물에 대한 영양성분 및 TDN 함량
- ③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활용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는 최소가격 배합비율 계산

## 4. 배합비 프로그램 추천과 다운로드 방법

농가에서 쉽게 이용할 수 배합비 프로그램으로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우사양표준 2019”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우 영양소 요구량에 근거한 거세우, 성빈우에 대한 사료배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선 농장에서 사용할 원료를 선택하고, 내가 사용하는 원료 선택하면, 쉽게 배합비 작성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http://nias.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접속방법: 누리집(<http://nias.go.kr>)접속 → 농가활용 프로그램 → 34번 한우사양표준 2019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올해 6~7월 전국한우협회와 공동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5월부터 전국한우협회를 통하여 교육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교육동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동영상에서는 프로그램이용, 배합비 작성, 장점, 오류상황 대처하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동영상은 농사로 누리집(<http://www.nonsaro.go.kr>)의 영농기술 - 동영상정보에서 ‘한우 자가 TMR 제조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 5. 농식품부산물 구입에 고려할 사항

2010년만 하더라도 부산물을 사료로 만들어서 급여하면 가격적으로 매우 유리하였다. 그러나 최근 부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에 신중해야 한다.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수분 함량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예시처럼 150원/kg 하는 생비지와 버섯배부산물에 있다. 가격은 옥수수(450~550원/kg)나 단백질(450~500원/kg)에 비해서 매우 저렴해 보이지만 수분을 고려하여 옥수수의 수분 12%로 보정해 보면, 가격은 330원/kg과 660원/kg이 된다. 따라서 생비지가 단백질이 많다고는 하나 매우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료명	가격(kg/원)	수분	수분12% 보정시 가격
버섯부산물	150	60	330원/kg
생비지	150	80	660원/kg

또한, 부산물 구입에 우선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구입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 시작하는 농가들은 부산물 가격이 싸다고 한 번에 많은 부산물을 구입해서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봤다. 원료는부산물은 필요량과 소비량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구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부산물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베이스사료 및 옥수수 등을 활용해도 자가 TMR 제조가 가능하다.

## 6. 부산물 및 TMR 분석 항목은?

특히 부산물은 지역 및 가공형태에 따라서 변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료분석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생기는 궁금증은 사료 항목 중에서 무엇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수분 → 칼슘, 인 → 조단백질·조지방·조회분·NDF·ADF이다. 수분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고, 칼슘·인의 경우에는 바로 요결석증 때문이다. 요결석증은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인의 비율이 칼슘보다 높을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 적정 칼슘·인 비율 : (1.5~2 : 1)

TMR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강의 경우 인 함량이 매우 높고 편차가 매우 심하다(1.2~2.0%). 이렇기 때문에 다른 영양성분보다 칼슘, 인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

7. 배합비 프로그램 적용 효과 및 배합비 사례

아래 배합비를 제시된 농장은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TMR을 만들어 급여하여 육질 성적 및 도체 등급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축산과학원의 기술지원 및 한우사양표준 배합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성고가 많이 향상된 농장으로 사료배합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배합비를 살펴보면 단백질 및 조사료가 많이 필요로 하는 육성기의 경우 대두박 및 알팔파가 사용하며,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비육기에는 옥수수의 비율이 증가 한다.

양주 J농장 배합비 및 육질 성적

	육성	젖기	우기
단백질	4.40	10.27	4.00
당밀	3.30	3.62	3.02
대두박	20.77	15.48	13.90
옥수수	4.47	16.61	30.16
파인애플박	21.94	9.95	10.11
깨묵	3.30	3.02	3.02
벼짚	-	10.01	5.31
알팔파	11.03	-	-
연맥	3.77	-	-
비타민	0.07	0.02	0.03
물	26.45	30.32	29.76
석외석	0.44	0.36	0.32
소금	0.07	0.18	0.20
중조	-	0.18	0.20

교육 적용 전 후 비교  
(27개월 출하)

분석항목	적용 전	적용 후 (A)	상위10% 성적*(B)	전국 평균*	A-B
도체중 (kg)	382.3	417	419.4	424.4	-2.4
근내지방도	5.2	7.2	6.1	5.4	1.1
1++ 출현율(%)	8.3	48.8		16.25	

특집 ②

고곡물가시대  
한우농가  
경영 안정화방안

최근 국제 곡물가격추이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1차적인 원료가격 상승이 있었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유럽의 곡물창고로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곡물시장은 얼어붙었다. 옥수수와 밀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애그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원인이 2008년, 2012년과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에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금의 상황을 2008년, 2012년과 비교해 보고 급등하는 생산비에 한우농가들이 대처해 나가야 할지 집중 살펴본다.



글. 안희경 기자(농수축산신문)







- 1 우트라이나 항구 내 폭격으로 파괴된 곡물 엘리베이터가 흩물스럼다.
- 2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송열차도 전쟁으로 인해 모두 파괴됐다.



##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

2020년 하반기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작황 부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난 등으로 곡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곡물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여기에 올 들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하자 추가로 급등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의 거래 차단, 자산 동결 등과 더불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대 러시아 금융제재까지 본격화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국제 곡물가격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 곡물가격은 지난해 3월 대비 많게는 80% 이상, 적게는 18%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대비 지난달 밀은 82%, 옥수수는 36.7%, 대두는

18.9% 상승했다”며 “지난 2월과 비교했을 때는 각각 43.9%, 14.9%, 5.8%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밀 선물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옥수수와 대두 가격 또한 2008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애그플레이션, 2008·2012년은 어땠나

2000년대 골디락스 경제와 곡물 수출국의 증산정책으로 2007년 10월까지 옥수수 가격은 톤당 216~285달러를 유지했다.

이어 2007년 11월 곡물가격 상승이 2008년 6월까지 지속되면서 301~424달러까지 급등하며 애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겼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의 결정적 원인은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증산정책에 의한 옥수수 수요급증이었다.

여기에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의 곡물수요가 급증하고 호주와 EU의 가뭄으로 공급부족이 겹치면서 200달러대였던 옥수수 가격은 2008

년 6월 424달러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당시 오르는 곡물가를 잡은 것은 달러와 해상운임이 안정되면서부터였다. 2008년 연말에는 옥수수 가격도 230달러 대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2012년 애그플레이션은 그해 8월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9월 인도분 옥수수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부셸(25.4kg) 당 8달러 31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시작했다. 당시 2012년 최저점이었던 6월 가격의 5달러 51센트보다 50% 이상 급등하면서 곡물가 급등의 시작을 알렸다. 2012년 곡물가격 급등은 2010년 작황부진으로 재고량이 감소한 데다 남미지역의 50년 만의 가뭄으로 세계 대두 수급 상황이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러시아는 가뭄, 인도는 우기의 강우량 부족, 유럽은 남동부 지역의 고온 발생, 호주는 서부지역의 가뭄현상으로 밀, 옥수수 등의 생육 피해가 심화됐다.

미국 농무부는 가뭄으로 옥수수 농장의 88%, 대두 농장의 77%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하며 당시 옥수수 수확량이 예년보다 3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전 세계적 가뭄이 겹치면서 옥수수 생산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2012년 6월 톤당 200달러대였던 미국 옥수수 가격은 두 달 뒤인 8월 400달러로 치솟았다.

올해 상황도 사정은 만만찮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옥수수 선물가격은 지난해 9월 톤당 206달러에서 지난 3월 24일 294달러로 6개월 만에 30% 이상 올랐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올해 상반기 내 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

이다. 코로나19로 시작된 해상운임 상승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해지면서 국제 곡물가격의 수급 불안정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로만 레센코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올해 봄 파종 면적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등 올해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량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남미의 대두 작황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올해 브라질 대두수출량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식품 인플레이션 우려로 대두박, 대두유 등의 수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사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이 나아져야 국제 곡물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 물류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상운임 상승세와 인플레이션에 의한 달러 혼조세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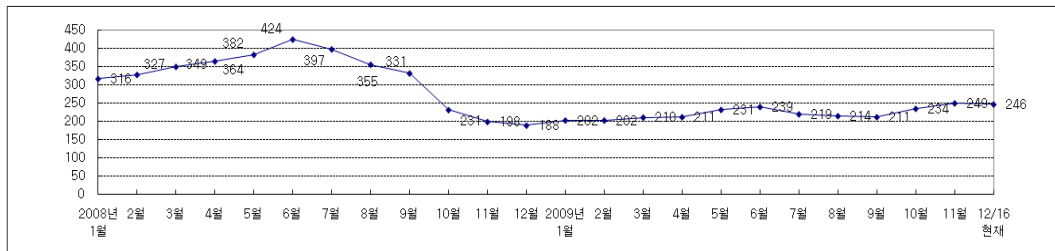
## 사료업계, 미국의 옥수수 파종 잘 이뤄지길 기대

사료업계에선 또한 미국의 옥수수 파종이 잘 이뤄져 향후 수확까지 잘 돼야 현재의 곡물 상승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미 지역의 주요 옥수수 생산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연간 옥수수 생산량은 약 1억 5000만 톤 가량 된다. 우크라이나가 3000~3500만 톤 정도 생산하는데 미국은 이 세 나라

2008~2009년 옥수수 톤당 수입가격 추이

(단위 : C&amp;F, US\$/MT)



생산량의 약 2배 가량인 3억6000만 톤 가량을 생산한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수출이 안 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성공적인 옥수수 수확과 더불어 전쟁이 조기에 종전하는 것까지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 종전 이후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운송, 선적 인프라 구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사료가격 30% 이상 올라 대책 필요해

사료업계는 국내 물가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금융, 세제 등의 지원과 더불어 곡물 비축량 확대, 국제 곡물 유통시장 진입을 통해 위기 시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이른바 국제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원료가격이 높아지면서 해외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별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난 1월 대비 30% 이상 배합사료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공장상차도 기준 kg당 육성우 사료가격은 298원에서 이번 달 415원으로 1년만에 약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에 이미 민간 배합사료업체 일부가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단행한 데다 올해 몇 차례의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생산자대책은 사료가격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료구매자금 금리인하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사료가격 인상분의 차액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지원 사례를 들며 농업인의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처럼 축산농가도 해외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부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료협회는 사료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기업 경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축산발전기금 내 사료산업 종합지원 금리 인하와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할당관세 한계수량 증량 추진과 함께 사료 부가세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사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배합사료 원료가격 상승세가 거세다”며 “배합사료업체들이 제품가격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현장적용이 늦어지면서 배합사료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결국 농가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차원의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한우, 수입쇠고기 이기는 ‘프리미엄 지위’ 확보해야

한우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명확한 지위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정식 확대로 한우고기 소비가 늘어난 데다 재난지원금으로 한우고기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한우고기 재구매율이 높아지면서 한우고기 소비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한우자조금과 건국대학교가 공동진행한 ‘한우고기 소비시장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연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우고기 구매처가 인터넷 통신의 발달과 함께 다양화되고 유통 매체간 상호 경쟁이 일어나면 한우시장의 오래된 난제인 유통마진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

우고기의 경우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경수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우는 수입 소고기에 비해 신선도라는 우월한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온라인 거래를 효율적이고 신뢰적으로 운영할 수만 있다면 향후 완전시장 개방 시대를 맞이할 때 수입 소고기에 대한 시장경쟁력 유지를 위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한우산업은 한우고기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단기적 수익성에 평가기준을 두지말고 미래의 효율적 거래방식에 대한 사전 연구라고 생각하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한우농가들이 수입육과는 다른 한우만의 완전한 프리미엄 지위를 확보하면서도 저등급 한우를 판매하는 방안을 마련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수 롯데마트 대리는 “코로나19로 가정 소비가 늘고 재난지원금으로 한우를 체험한 소비자가 늘어나는 등 한우소비에 있어서 팬데믹은 기회요인이었다고 본다”며 “가심비가 중요해진 소비문화에서는 한우가 수입육과 무리한 가격경쟁 보다는 수입육이 넘어설 수 없는 신선함 등 한우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브랜드화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체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대리는 “완벽한 프리미엄으로 수입육이 넘볼 수 없는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저등급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비방안을 함께 마련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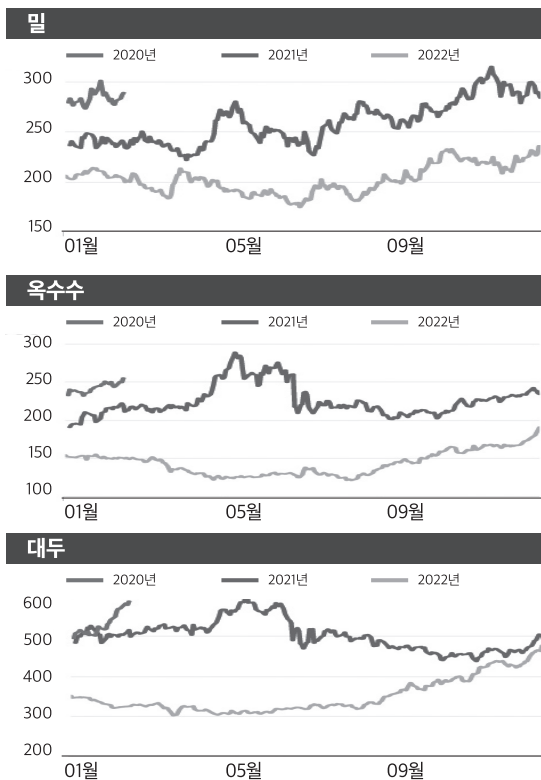


# 흔들리지 않는 한우산업을 위한 선택



글 김웅 이사  
(카길애그리퓨리나 축우전략마케팅부)

<그래프 1> 국제 곡물가격의 변화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 식량 물가 비상... 고공행진하는 사료가격

어려운 시기이다. 애써 다른 말로 포장하려 해도 요즘 축산농가를 보면 쉽게 바꿀 수 없는 표현이다. 매일 뉴스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간 최고치로 급등했다고 전하고, 완화되는 코로나 시국 이후 뒤따른 애그플레이션으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작년 초부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2년 전보다 밀은 214%, 옥수수는 205%, 대두는 200%가 상승했다.

이렇듯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있다. 우선 이상 기후(라니냐 현상)로 인한 남미 시장에서의 곡물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중국의 ASF 회복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가 급증한데다, 코로나 사태는 수입국들의 식량 비축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마비시켜 물류 비용을 대폭 올려놓았다. 또한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의 자국 내 밀 공급량 감소로 인해 수출 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게다가 세계 3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곡물가격이 어디로 어떻게 될 지 예측 불허인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는 한우 육성우 사육에 중요한 수입산 건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배합사료와 조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농가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다. 본격적인 국내 사료가격 인상이 시작되었던 지난 2021년 초 대비 현재 배합사료가격

은 20% 정도 상승했으며 지금 기준으로 전망할 때(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완화되겠지만) 올 연말까지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애그플레이션의 두가지 측면

전 세계인을 식량 안보의 위기로 몰아넣는 애그플레이션 현상은 소고기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내 소고기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소고기의 지육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입 소고기 가격이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내 소고기 소비량은 2021년 연간 990만톤으로 1인당 6.8kg인데, 2030년까지 8kg으로 18%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간 176만톤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연간 소비하는 소고기(70만톤)의 2.5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중국이 글로벌 소고기 소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세계적으로 소고기 생산량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년 간 지속된 애

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미국, 호주 내 방목하는 소에게 악영향을 미쳤고, 일부 선진국의 저탄소 정책으로 인해 소 사육에 제한을 두며 사육두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고기의 수요와 공급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글로벌 소고기 가격은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달 말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산 수입 갈비가 100g에 3,765원을 기록하여 전년 평균 가격(2,454원)에 비해 53%나 올랐고 호주산 갈비도 2,494원에서 3,497원으로 40%나 올랐다. 백화점 지하 1층 식품코너를 돌아 보면, 예전에는 매대의 점원들이 한우보다 싸다며 미산소고기 홍보를 많이 했었으나 최근 가격이 급등해서인지 최근에는 이런 모습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는 한우가 수입 소고기의 완전한 대체제는 아닐지라도, 고공 행진하는 수입 소고기 가격 덕택에 최근 한우도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우 도축두수가 증가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한우 거세우 기준 지육가격이 17,000원/kg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아직까지 21,000원/kg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

(단위 :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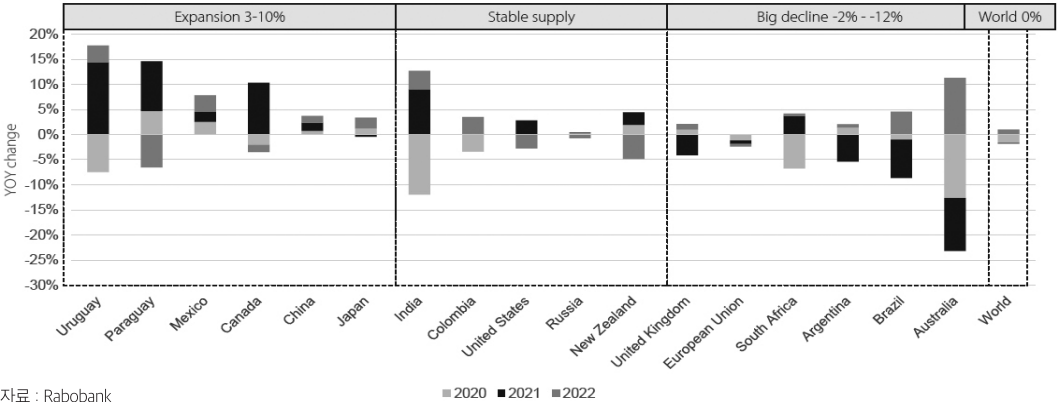
<표 1> 중국의  
소고기 소비량 전망

소고기	2020		2021		2022	
중국	USDA Official	New Post	USDA Official	New Post	USDA Official	New Post
생산량	6,720	6,720	7,050	6,830		7,000
수입량	2,782	2,782	3,000	3,100		3,300
공급량	9,502	9,502	10,050	9,930		10,300
수출량	16	16	20	20		21
소비량	9,486	9,486	10,030	9,910		10,279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이다. 소고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느끼는 한우의 경쟁력이 전보다 비싸진 수입 소고기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 완화되며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고, 반대로 보복성 소비로 인해 소비가 좋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소비에 따라 한우의 가격이 변하겠지만, 앞으로 19,000원/kg 대 이하로 폭락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오랜 기간 한우인들이 개량을 통해서 한우라는 고유브랜드의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만들었고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프 2> 주요 소고기 수출국 생산량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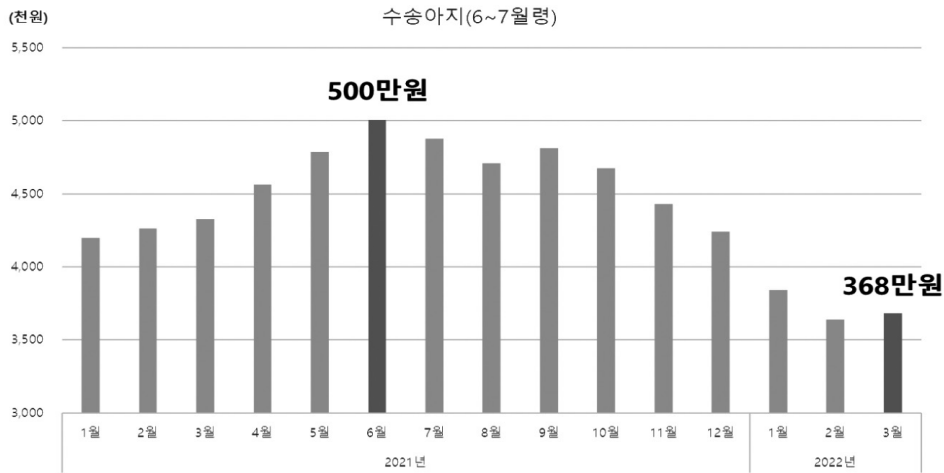
자료 : Rabobank

한우비육농가의 수익을 좌우지 하는 것

한우비육농가의 수익은 수입(매출액 = 지육가격 X 도체중) - 비용(송아지 입식비용과 사료비용)으로 결정된다. 1) 지육가격 2) 도체중 3) 송아지 입식비용 4) 사료비용 4가지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농가의 흑자와 적자가 정해진다. 개인 사업자로서 한우농가가 스스로 노력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지육가격과 송아지 입식비용이다. 지육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으니 송아지 가격 흐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 6~7개월령 한우 수송아지 가격은 최근 높은 한우 지육가격을 반영이

라도 하듯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 6월에 평균 500만원/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한우 지육가격이 하락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심리가 반영되어 2022년 3월에 368만원/두까지 꾸준히 떨어졌다. 예상만큼 지육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최근에는 다시 송아지 가격이 상승하려는 조짐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큰 소가격과 송아지가격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2021년 6월 한우 거세우 평균 지육가격은 23,853원/kg에서 2022년 3월 21,167원/kg으로 두당 매출액이 120만원 감소했다. 수송아지 가격 역시 500만원/두에서 368만원/두으로 132만원 하락했다. 수입이 감소한만큼 비용도 감소했으며 이는 한우산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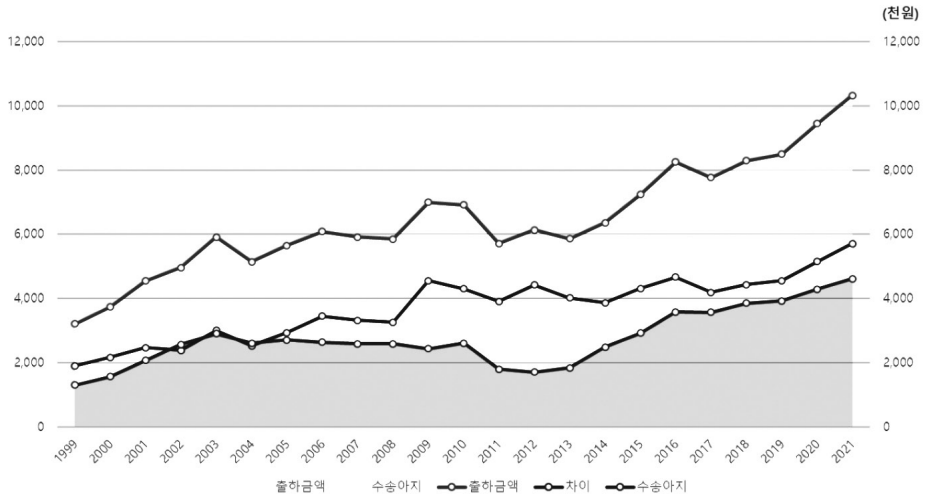
<그래프 3> 한우 수송아지(6~7개월령) 가격 추세



자료 : 농협축산정보센터

아래 그래프4는 1999년부터 작년까지 한우 거세 비육우 평균 출하금액과 수송아지 입식비용의 차이(송아지비용 공제수익)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그 차이가 물가 상승과 더불어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우산업은 수익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적인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특성 때문에 요즘에는 안정적인 한우에 투자하는 P2P 형태의 펀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아래 숫자와 같이 한우농가의 수익이 계속 상승했던 것은 아니고, 최근처럼 곡물가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비용이 대폭 상승할 경우 수익이 상쇄될 수 밖에 없다. 안정적인 한우산업에 생산비 증가라는 큰 고민덩어리가 던져진 것이다.

<그래프 4> 한우 거세우 출하금액과 수송아지 입식비용 차이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카길애그리퓨리나



## 생산비를 줄일 것인가,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당장에 수익이 감소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된다. 선택은 두 가지다. 1) 사료비용을 줄여서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과 2) 생산성을 높여서 매출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지난 2년간 애그플레이션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평균 120원/kg 상승했다. 이로 인해 한우 거세우 두당 사육비가 60만원 증가하게 된다(30개월령 출하 시 배합사료 5톤 먹는다는 가정 하에). 생산비를 줄여서 수익을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120원/kg(포당 3,000원) 저렴한 사료로 교체하면 된다. 다만, 가장 큰 대전제는 생산성이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을 때이다. 두당 60만원을 생산성 지표로 환산해 보면, 도체중 28kg, 지육가격 1,300원/kg, 사육개월 2.5개월이다. 예를 들어 저가사료를 선택하더라도 사육개월이 전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도체중이 28kg 이상 줄어들거나 등급 출현율이 줄어들어 지육가격이 1,300원/kg 이상 떨어진다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또다른 선택지는 바로 생산성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이다. 국내 한우 개량이 어느 정도 완성되



었다고 보면, 현재 농장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는 도체중 부분이다. 같은 개월령에 출하하면서도 도체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초기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골격과 체중이 높은 우량 송아지가 우시장에서 평균가보다 100만원 이상 호가하는 이유는 바로 초기성장이 잘 된 밑소가 출하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체중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량 송아지에 맞는 비육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것이다. 기존과 동일한 사료로 급여량만 늘려서는 도체중을 높일 수 없고 오히려 반추동물에게 과산증이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같은 양으로 더 높은 일당증체를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일본에서 활발히 사양실험을 하고 있는 가열 대두박 관련된 연구들은 참고할 만하다. 축우 사료 원료로 잘 사용하지 않던 대두박을 특수처리해서 사료효율과 일당증체를 높이는 결과는 한우에 있어서도 도체중을 크게 향상시켜줄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일관농장이 많이 늘어났다. 우량 송아지를 구하기 어렵고 송아지 입식비용이 비싸지면서 비육전문농장이 일부 번식우를 키우기도 하고, 번식전문농장이 규모화되면서 태어난 수송아지 중 A급 송아지를 직접 비육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고민이 큰 농장은 바로 소규모 번식전문농장일 것이다. 주요 수입원이 송아지 판매 수입인데, 송아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중요한 것은 송아지의 평균가격은 하락했을 지라도 우량 송아지의 가격과 일반 송아지의 가격 격차는 항상 크다는 점이다. 즉, 호황



이나 불황이나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장은 파고를 덜 타게 된다. 우량 송아지 육성 조건은 설사를 예방하는 것이고 이는 송아지 면역력으로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초유를 빠른 시간 안에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어미소의 초유 질과 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시중에 판매하는 초유 대용유를 급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또 하나 조건은 어린 송아지 시기(분만~6개월령)에 최대한 많은 양의 배합사료를 급여하여 6개월령 체중을 200kg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역시 일반 송아지사료로 양만 많이 먹인다면 식이성 설사 및 똥똥하게 체중만 늘어날 수 있다. 관건은 골격 위주의 성장과 반추위 용모 발달을 촉진하는 우량 송아지 전용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식전문농장에서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부분은 바로 잇고 있었던 번식우 생산성이다. 우리나라 평균 분만간격은 15개월로 목표인 12개월(1년 1산) 대비 3개월 늦다. 3개월 간의 생산비가 더 소요되며 농장의 규모가 클 경우, 제한된 공간에 회전율이 낮아서 오는 총 수익 하락으로 이어진다. 1년 1산을 위해서는 분만 후 80일 안에 수정이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소외받았던 한우 암소에게도 고영양사양이 필요하다. 고영양사양을 위해 좋은 사료를 선

택하면 단순히 kg당 사료값이 올라가서 생산비가 올라간다고 예상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실제로 사료량이 많이 절감되어 생산비는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 대부분 번식우들은 일반적으로 4kg/일/두 배합사료를 섭취하는데 고영양 번식우사료는 2.5kg/일/두로 사육이 가능하다. 하루 1.5kg 사료량의 차이는 사료값으로 환산하면 240원/kg(6,000원/포)과 같다. Kg당 가격보다 실제 소요되는 사료비용의 개념이 그래서 중요하다.

## 마치며

불과 2년 전, 전세계가 코로나로 일상이 변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이다. 한우 소비가 지금처럼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좋게 유지되는 것도, 곡물가가 2배 이상 오르는 것도 그렇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불확실성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느낌이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은 그저 운에 불과할 뿐이다. 한우의 가격, 사료의 가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크고 작은 사업으로 농장을 경영하는 한우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운에 맡길 것인지 경쟁력을 갖춘 농장으로 성장하여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영주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산성 상위 1%의 농장들은 한우산업의 구조조정을 기대하며 대박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업계가 처한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한우인들이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 사료가격 폭등기 과거에는 어떤 정책이 있었을까?

2008년/2012년 사료구매자금 1.5조원 배정...올해는 3,550억 원 그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는 곡물 수급 불안으로 두 차례 큰 폭의 곡물 가격 상승을 경험하였다.

2007/2008년과 2011/2012년 두 차례 큰 폭의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불안에 시달린 바가 있

으며 또다시 2021/2022년 두 번의 위기 때보다 더 큰 규모의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식량 빈국 중 하나이다. 2019년 현재 곡물자급률은 21%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의 빈약한 자체 곡물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 쌀 가격이 국제 곡물 가격보다 높고 자급률까지 높다 보니 국제 곡물 가격이 웬만큼 상승하지 않고서는 체감하기 어렵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제 곡물가격에 곡물 자급률에 비해 충격을 덜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79%에 이르는 수입곡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



글. 김재민 편집장  
(농장에서식탁까지)

드는 산업은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유를 살펴보면 수궁이 가는 대목이 있는데 수입물량 중 67.7%가 사료용으로 수입되고 있고, 식용 및 가공용은 32.2% 정도에 그치고 있

기 때문이다. 곡물 가격 인상의 영향이 소비자에게는 32% 내외로 축소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은 축산업계에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식품회사(사료회사 포함)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판매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 가격을 제조업체가 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축산농가들은 사료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인상요인을 축산물 판매가격에 곧바로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다. 축산물의 가격은 축산농가들이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 산정 또한 우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이 된다. 우유의 경우는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듬해 8월 1일에 인상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길게는 1년 가까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08년, 2012년 국제 곡물 가격 폭등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보다는 축산농가들이 고물가에 큰 손실을 입게 된다.

2008 · 2012년

고 곡물가 시대 정부의 대책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이다.

2008년과 2012년 각각 1.5조 원을 저리에 농가들에게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사료를 선지급으로 구매하면 할인된 가격에 사료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위기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때 함께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은 자급조사료 확대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알곡과 품사료를 동시에 급여하는 효과가 있는 종체보리, 종체벼 확산

에 나섰고, 동시에 배합사료 급여 비율이 낮은 TMR 사료 급여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기술 보급 및 확산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11년 10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2014년까지 양질의 우량사료작물 생산량을 2배로 늘려 조사료 자급률을 9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수입 견조와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볏짚 사용량을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정부의 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도의 소 사육두수 전망치와 조사료 급여 비율 및 사육두수를 감안한 조사료 필요량은 588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2010년 82%인 조사료 자급률을 2014년에는 90%를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2010년 현재 24만4천ha에서 '14년에는 3천ha로 확대하고, 사료작물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2010년 7.7톤/ha에서 2014년에는 9.4톤/ha로 증가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국제곡물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







## 2021/2022년 곡물 가격 폭등 정부 대책

2021년 4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국제 곡물 수입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관세율 3%인 식용 옥수수의 경우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 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 관세 0%(관세 인하 혜택 : 128억 원)

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및 식품·외식 업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식품외식종합자금 1,440억 원에 대한 융자 금리를 2.5~3.0% → 2.0~2.5%로 조정하였다.

이어 정부는 2021년 6월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사료업체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함으로써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는데, 사료업체('21년 500억 원), 식품업체('21년 1,440억 원)의 원료 구매비용 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1.8~2.3%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6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식품·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발표하였다.

먼저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매출액의 30%까지이나, '21년까지 40%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던 것을 2023년까지 연장 검토하기로 했다.

사료 및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 규모('21. 1,240억 원)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 2월 9일(수) 오후, 농촌경제연구원 오송관측센터 대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 곡물 수급 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곡물 분양

국내 영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곡물 가격 추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①정책자금('22년 원료구매자금 : 식품 1,280억 원, 사료 647억 원) 금리 인하 및 지원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②사료 원료 배합 비중 조정(사료업계 협조) 및 대체 가능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 증량, ③국내 반입 시 신속 통관지원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농식품부는 3월 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곡물 시장 불안에 대응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사료와 식품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 원, 식품 1,280억 원) 금리를 기존 2.5~3.0%에서 2.0~2.5%로 0.5%p 인하하고, ②사료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해 할당 물량을 증량(겉보리 4→10만 톤, 밀기울 3→6만 톤, 3월) 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사료·전분당 업계와 협의하여 사료용 곡물의 안전재고 일수 확대(30일→60) 및 사료 원료 배합비 중 조정, 업체 간 소비대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 대책 평가 및 시사점

2007년/2008년, 2011년/2012년 당시 정부 대책은 매우 신속했으며 과감하였다.

정부의 대책은 사료 및 식품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 구매자금 제도를 신설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던 해외농업개발,

국제곡물회사 설립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도 가동하였다.

2021/2022년 정부 대책은 사료회사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구매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과거 정부에서 해온 사료 구매자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쉬운 대목은 사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책정된 예산은 3,550억 원으로 2021년보다 100억 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높게 유지되며 사료비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적었으나 올해 한우 가격이 하락 반전되면서 농가들이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2018년, 2012년 1조5,000억 원으로 과감한 예산을 배정했던 것과 달리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불어 사료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축산업계는 일본에서 실시 중인 사료가격안정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역대 정부는 재정 상황 등을 들며 난색을 보여왔다.







# CPTPP 가입반대 농어민 총궐기대회

지난 4월 13일 약 1만5000여 농어민들이 서울 여의도 광장으로 상경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가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CPTPP는 개방수준이 농축임산물 96.3%, 수산물 100%에 달하는 메가FTA다.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연간 8400억 원이 넘는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며, 중국 가입, 검역기준 완화 등 피해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 다수 있어 사실상 '농어촌 말살 선언'과 다를 없다. 따라서 우리 농어민들은 '농어민 말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선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상여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 가운데 우리협회는 가장 많은 인원을 대동하여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였다.

## ※ CPTPP 가입 제동 성공

우리 협회를 비롯한 농수축산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CPTPP가입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 CPTPP 가입 신청'을 밀어붙였지만, 농어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담을 느낀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임기 안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우리협회를 비롯한 농축수산 단체들은 여의도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대통령인수위 접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CPTPP가입 전 농어민과 소통으로 경쟁력 강화 및 지원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⑤ 단상에 올라 CPTPP 가입 반대 투쟁사를 발언을 한 김삼주 회장은 전쟁보다 사료값 폭등과 CPTPP가 더 무섭다며 선량한 농어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아무런 대책없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 ⑥ 최종호 경북도지회장, 정윤섭 전북도지회장, 이규옥 대전충남세종지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⑦ CPTPP 가입 반대 전국 농어민 총궐기에서 투쟁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미소농장 농장  
홍슬아 대표

## 최고의 한우 번식농장을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

“요즘은 한우 키우면  
‘힙(트렌디)’하다고 해요”

“한우 플렉스라는 말도 있죠.  
오히려 한우 사육에 대해  
어린 친구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제 한우 사육이  
‘힙(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한  
시대가 왔어요.”

충남 홍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청년부부 양선호(40), 홍슬아(31) 씨는 귀농 5년차 송아지 번식 농가다. 농장 이름은 미소농장. 대표이사는 92년생 슬아 씨다. 농촌에서 보기 힘든 조합인 만큼 이들은 주목받는 축산 농가다.

5년간 소를 키웠으니 농촌에 진입할 당시만 해도 20~30대 젊은 부부였다. ‘90년대생’과 ‘한우 사육’은 사뭇 이질적이지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편견이다. 그녀에게 직업을 물어보는 후배들의 말에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슬아 씨가 한우를 키운다고 하면 가장 먼저 듣는 대답이 “와 대박! 정말 멋있어요!”다.





## “소똥 냄새, 저는 왠지 구수합니다”

승마 교관이었던 선호 씨와 슬아 씨는 승마를 매개로 만남을 키웠고, 결혼에 골인했다. 2018년 미소농장을 세우고 20여 두의 한우로 농장 경영을 시작했다. 선호 씨가 한우 농장을 운영해보자 제안했을 때 슬아 씨는 고민도 하지 않고 알겠노라 했다고. 처음 시작인 만큼 선호 씨는 운송업을 겸하며 농장 경영의 위험 요소를 줄였고, 틈틈이 슬아 씨를 돕는 체제를 만들어 나갔다. “옛날부터 큰 동물에 정이 가더라고요. 송아지 보면 내 새끼 같아요.” 정적인 농촌 생활, 낯선 환경, 축산이라는 진입장벽은 부부에게는 큰 벽이 되지는 않았다.

특히 동물과의 교감을 좋아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별명까지 있는 슬아 씨에게 사람과 부딪히는 것보다 소와 교감하는 게 오히려 더 편했다. 심지어 소똥 냄새까지 구수하단다. 그녀는 “한우 사육이 천직인 듯 싶다”고 귀띔했다.

## 농촌의 ‘양-홍 반장’ 텃새도 홀홀

물론 청년들의 귀농 정착기는 드라마에서 보는 그 흔한 ‘멜로드라마’는 아니었다. 특히 농촌 사회에서 축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멜로에서 ‘호러물’로 장르가 전환될 뻔한 위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축산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대로 실감했다는 것이다.

“저희가 타지역에서 축산 농장을 하려고 했는데 원주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매일 일터까지 쫓아와 떠나라고 종용하면서 결국 그곳에서 축사를 접고 홍성에서 농장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쉽지만은 않았다. 축사는 어디를 가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이때 선호 씨 특유의 넉살이 농촌 텃새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농촌에 와서 보니 어느 곳이든 청년의 손이 필요하더라고요.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일손도 보태고, 농장관리도 깨

끗하게 했죠. 영화에서 농촌의 온갖 일들 도맡는 사람 있잖아요. 흥 반장처럼요.”

## 청년 일손, 농촌 활력 생동감 기폭제

양홍 반장으로 불리는 두 부부는 농촌에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촌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정보에 취약하고 트렌드에 어둡다. 두 사람이 농촌 사회에 주는 활력과 생동감은 수치로 환산하기 힘들지만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가령 사료문제나 동물약품 문제로 고민하는 농가가 있으면 문제를 공유하기도 최신 정보로 의견 교환을 하기도 한다.

“농촌 생활을 하는데 후계자가 없으면 도움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웃사촌이라고 농촌 커뮤니티에서 받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아요. 농촌에 청년들이 수혈돼야 하는 이유죠. 예컨대 비닐 하우스를 증축할 때 파이프 심는 작업만 해도 젊은 사람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해요. 청년 인프라는 고령화된 농촌이 공생하는 데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활력을 주는 기폭제가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저희를 먼저 찾는다니까요.”



“한우협 사료는 타 사료에 비해  
저렴하잖아요. 가성비로 따지면 최고죠.  
솔직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보통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자체가 훌륭한 상품들은 젊은이들부터  
알아보잖아요. 아무래도 기타 서비스에 큰  
구매받지 않고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  
가능한 일 아닐까요. 아마 청년 한우 농가가  
늘면 한우협회 사료도 인기가  
폭주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한우협회, 농가의 든든 지원군 "협회 전용사료 도움 많이 됐어요"

농촌의 인적 네트워크는 두 부부에  
게도 큰 힘이 됐다. 특히 한우협회의  
도움이 각별했다는 게 선호 씨의 전  
언.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 이근  
우 사무국장은 미소농장이 자리를  
잡는 데까지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  
지 않았다.

“저희가 처음 한우사육을  
시작할 때 입식도 도와주고  
새끼도 빼주는 등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역 한우협회가  
모세혈관처럼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협회의 힘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협회의 도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축  
산 경영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사료 문제도 선택권을 부여하  
면서 농가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고 있다. 홍 대표는 한우협회  
전용 사료가 처음 론칭됐을 때부터  
사용한 협회 사료의 열혈 지지자다.  
한우협 사료를 주면 “입질부터 좋  
다”면서 고급 사료에 비해 손색 없  
다는 평가를 내린다.



## 미소농장 송아지 엄지척 농장 브랜딩 힘쓸 것

그렇다고 두 부부의 한우 사육은 마냥 즐거웠  
던 것은 아니다. 슬아 씨는 송아지를 키우면서  
눈물 바람에 밤을 지샌 일도 부지기수였다. 한  
우 농가, 특히 번식농가의 성패는 농민의 발자  
국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번식 농  
가의 일은 고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식농  
가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슬아 씨는 “송아  
지가 귀엽잖아요”라고 답한다.

미소농장을 최고의 송아지 생산 농가로 만들  
겠다는 두 부부의 목표는 지난달 우시장에서  
1등으로 송아지값을 낙찰받으며 증명해냈다.

“미소농장에서 나온 송아지는  
안 봐도 된다고 할 정도로 농장을  
브랜딩하고 싶어요. 지금도 CCTV로  
눈 별게가며 지켜볼 정도로 새벽이슬을  
맞으며 일하고 있으니 5년 내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한우  
키우기에 대한 자부심도 커요.  
주위에 한우 사육에 대해 묻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는 앞으로 농촌이 힘찬 시대가  
온다니깐요.

이미 한우는 충분히  
트렌디합니다.”



# 한중에스에스, 고곡물가시대 든든한 파트너

TMF 사료원료 구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  
교반작업 없이 알아서 완전부숙 '21일생균완숙왕'



아침목장  
김영길 대표



자신의 농장에서 출하한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정육식당을 전국구 맛집으로 일군 아침목장 김영길 대표.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아침목장은 김영길 대표의 발자국으로 매일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호랑이 무늬를 가진 전통한우 찹소(90두) 등 약 250두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사료 향기를 맡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저는 업체사료를 아예 먹이질 않아요. TMF를 하는데 버무리는 원재료만 15가지가 넘거든요. 그 원재료는 모두 한중에스에스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 구해다 줘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쿠팡같이 저에겐 한중에스에스가 만물상입니다”





1

김영길 대표는 과거 팜스토리한농에서 근무하면서 사료가 모든 성적을 결정짓는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한중에스에스는 바로 그의 사료 철학을 실현시켜준 고마운 업체라며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아침목장은 매스컴에 호랑이 무늬를 가진 전통한우 칙소 목장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 배경엔 김 대표 특유의 옹골진 뚝심 TMF 화식사료와 안정적인 한중에스에스의 공급이 합이 조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아침마다 한중에스에스에서 공급받은 사료 원재료들을 살피면서 사료를 배합한다. 직접 농장에서 스티밤패합기를 이용해 화식사료를 제조하고 사육 및 육가공, 한우정육식당까지 운영한다.

### 칙소 맛보고 반해서 칙소 사랑 두 마리 토끼 화식한우 = 생산비 절감, 최고 성적

도축장에 근무하며 농장도 없었던 김영길 대표는 우연히 칙소를 맛보고 그 맛에 반해 덜컥 40여두를 들였다. 시작은 무모했지만 남다른 철학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대학시절 식품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독학으로 사료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다. 새송이버섯, 피, 아몬드 등 15가지 정도의 원재료의 선별부터 비율까지 소가 소화하기 편하도록 최적화해 화식으로 먹인다.

“화식이란 게 옛날식 여물을 삶는 겁니다. 소가 소화하기 편해야 맛있는 고기가 나옵니다.

1. 농장의 약 40%는 칙소가 차지하고 있다.
2. TMF사료를 제조하고 있는 모습.
3. 화식사료의 상태를 확인하는 김영길 대표.



2



3

소의 건강과 성적은 직결되거든요. 최고의 성적과 맛의 비결은 한중에스에스의 안정적이고 균일한 원재료 공급으로 만드는 TMF 화식과 21일생균완숙왕 같은 첨가제라고 볼 수 있죠.” 제조할 때 투입되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비용 측면에서는 기존 배합사료 가격을 절반으로 뚝 떨어트릴 수 있다고. 한중에스에스가 공급하는 원료는 농식품 부산물로 날로 증가하는 사료 비용을 효율적으로 낮추는 효과 극대화한다. 이 농식품 부산물들은 옥수수와의 1:1 대체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발효된 원료를 사용해야 사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가축영양학의 이론에도 충실하게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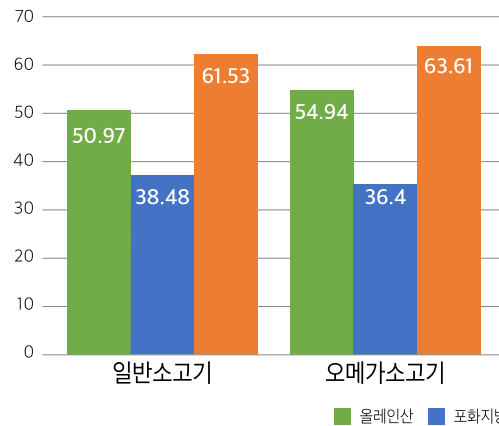
이처럼 생산비절감 측면이 돋보이는 아침목장에서 출하된 한우들은 투뿔(1++) 중에서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넘버나인(No.9) 등급을 적절히 받아낸다. 화식사료를 급이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특별함에 유명 셰프들까지 관심을 보인다고.

### 한중에스에스 ‘21일생균완숙왕’ 최고 쌍기만 하면 알아 부속돼... “축분 서로 가져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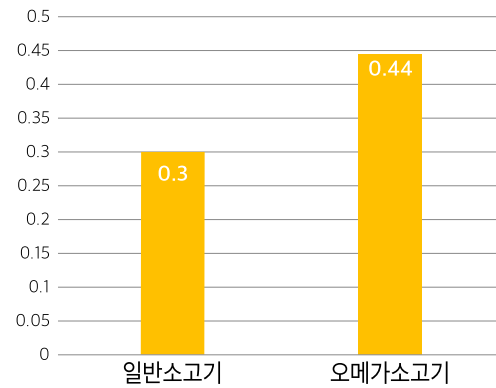
한중에스에스 김호연 팀장은 “21일생균완숙왕 첨가제는 미생물제제로 장내 총균수를 증가시켜 유산균과 고초균, 효모균, 황국균을 충분하게 공급한다”며 “21일생균완숙왕을 급이한 비육소들은 배합사료를 20개월 이상 급이한 소들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비육 후기의 입담음 현상이 없고 오히려 비육후기, 마무리기에 도체중 증가를 가속화해 농가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전했다.



<그래프1> 올레인산,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그래프2> 오메가3



실제 배합사료 8kg밖에 먹지 않던 비육소들이 다시 11kg을 먹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21일생균완숙왕’내의 유익균들이 장내 용모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소화력을 올려주고 산도를 맞춰 주므로 식욕을 되찾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퇴비사에 분뇨를 쌓아 놓기만 해도 부숙이 돼요. 주위 농가들에게 소문이 나서 친환경 농장으로 거듭났어요. 퇴비를 쌓아놔는데도 냄새가 안 나잖아요. 주변에 과수농가라든지 경종농가들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예요.”

실제 농장에서선 조금의 냄새도 느낄 수 없었다. 이 현장에 같이 방문한 농업 전문지 기자도 “많은 농장을 다녀봤지만 이처럼 냄새가 안 나는 농장은 처음이다”고 전했다.

21일생균완숙왕’은 도체중 증가 및 유익한 영양학적 수치 개선으로 농가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한중에에스의 미래 먹거리 첨단 무기다. 위 그래프는 아침목장에서 6개월 이상 한중원료와 21일생균완숙왕을 급이하여 비육한 한우의 등심 부위를 지방산, 유황, 사포닌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다. 일반 소고기와 비교

하여 눈에 띄게 모든 수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인체에 유익한 오메가3(불포화지방산)가 증가하여 영양적으로도 우수하고, 유황과 사포닌 등의 수치도 높아졌다. 특히 한우의 특별한 맛의 비밀이라는 올레인산도 일반 소고기에 비해 증가하는 결과가 눈에 띈다.

시험급이를 하다가 농장 전체로 확대한 산증인인 아침목장 김영길 대표는 연신 한중에에스를 극찬했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는 실제 고객입장에서 든든한 동반자와 같다고 추켜세웠다.

“잘 아시겠지만 농가들이 효과 없으면 안 써요. 특히 저는 더더욱요. 첨엔 1포만 주문해 3~4마리(우사1칸)만 시험 급이하다가 효과를 보고 농장 전체에 쓰고 있어요. 한우 농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료의 미세한 변화에도 반응하는 소들의 ‘입단음’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먹성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소들이 속이 편해보이는 게 제 눈엔 보여요. 등급을 올리는 데도 기여하지만 특히 퇴비 발효에 특효약입니다”

# 21일생균완숙왕

겨울에도, 수분이 많아도 무조건 부숙 해결!!

“ 급이 후 21일만에 부숙이 되지않으면  
환불해드립니다. ”



우사 바닥에서 **완전부숙**

별도의 생균제 불필요

구더기, 파리 90% 감소

배합사료 8kg → 11kg로 **섭취량 증가**

## 주문 및 상담 \* 전국 대리점 모집

- 한중에에스 대표전화 : 02-778-6443 / 010-8615-5191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21 나길 84 2층(개봉동)



“한우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하면  
예산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이벤트 회사에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부분의 지출을 줄여  
한우를 사랑해주는  
소비자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환원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지난 4월 말 만난 한기웅 전국한우협회 부산  
경남도지회장의 일성이다. 그는 “한우 소비촉  
진행사에서 국민에게 한우를 강하게 어필하려  
면 5~10% 할인율로는 저렴하다고 체감할 수  
없다”며 “한우고기 평균가격의 50%로 적용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  
했다.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은 “실제 지난  
해 한우의 날을 맞아 진행한 행사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부산경남도  
지회는 한우 등심 6100원, 안심 7300원(1+등  
급·100g 기준) 등 파격적인 가격을 선보였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경남도지회가 4일  
부터 8일까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부산점  
주차장에서 개최한 ‘한우와 함께하는 한우데  
이 한우숯불구이축제’ 행사도 등심·안심·채끝  
9200원, 갈비살 1만3200원, 꽃살 1만4400원,  
부채살·치마살 1만2500원에 판매했다.  
시중가 대비 최대 20~40% 할인한 가격이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고시(5월 4일 소비  
자가격 기준)하는 안심(1만6101원)·등심(1만  
3477원) 가격보다도 월등히 저렴하다.

한기웅 도지회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  
족·연인·친구 등 함께 한우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원료육 구매부터 신경 썼다”고 설  
명했다.  
행사 준비에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엔 “한우  
산업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고생  
도 아니다”며 “소비자들이 이 같은 행사를 통  
해 한우를 사랑해주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이 같은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  
은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시군지부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한 지회장. 그는 “역대 도  
지회장들이 잘해온 것은 물론 사무국장 8년  
을 하면서 18개 시군지부와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며 “내가 부탁할 부분은 지부에 정  
중하게 요청하고 지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  
분은 내가 어떻게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처음엔 생각이 달랐어도 서로 의  
견을 나눈 후에는 흔쾌히 도와주신다. 항상 감  
사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한기웅 도지회장이 한우 농가를 최우선  
에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시군  
지부와의 원활한 소통 등에 일조하고 있다. 경  
남지역 한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기여한 부분과 취임 후 18개 시·  
군을 다니며 시군지부와 일선 축협 간 임원 간  
담회를 진행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도지회장은 “축협에 한우협회를 알리며 상  
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덕분에 양측의 상생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  
안 도내에 한우산업 발전 관련 조례안이 없었  
다. 도의원들을 만나는 등 활동하면서 지난해  
‘경남도 한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

끌어냈다. 올해부터 이 조례안을 활용할 계획”  
이라며 “6월 지방선거 이후 경남도의원들과  
협의해 퇴비 부족도 관련 장비 지원, 유전체  
검사 등 한우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전체분석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관  
련 사업도 부산경남도지회가 신경 쓰는 사업  
이다. 한기웅 도지회장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농장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경남도와  
함께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농민수당  
여파로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삭감됐지만 유  
전체분석사업은 75%까지 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요즘엔 조사료 파종을 위해 무인  
헬기·드론 등을 활용하는데 농가들의 비용 부  
담이 크다. 그래서 진주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와 축협 등과 논의해 100% 보조사업을 만들  
었다.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 이를 벤치마킹해  
해당 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우 농가들을 위해 헬퍼사업을 2020  
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  
로 늘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024년 3월까지 임기가 약 2년여 남은 한기  
웅 도지회장은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을 주고 필요한 사업을 구상해서 시행하고 싶  
다. 그리고 민원을 줄이고 마을 주민들과 상생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시행하고 싶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시군지부 회비 의존도를 줄  
일 수 있도록 도지회 차원에서 수익 사업을 만  
들어 운영비 외에는 회원들의 복지 등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환원하고 싶다”는 한기웅 도지  
회장은 “한우산업의 미래가 있어야 우리(한우  
농가)의 삶도 미래가 있다. 한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든든한 한우산업 지킴이,  
부산경남도지회

“한우 농가  
위해 일하고  
한우를  
사랑해주는  
국민에게  
보답 약속”



# 작지만 강한 지부, 거제시지부

김상범 지부장 특유의 인싸력\*으로 2년간 회원 배가  
거제시 보조사업 대행하며 모든 농가 혜택 가도록 총력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 거제시지부가 위치한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답게 1차 산업 중 수산업 비중이 매우 높다. 거제도에도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제시가 위치한 거제도는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고 인근의 경남 사천시, 전북의 군산시, 전남 함평군 등보다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사면이 바다인 거제시의 특징은 생산되는 농산물의 맛이 뛰어난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들 대부분은 지역 농산물을 홍보할 때 해풍을 맞고 자라 다른 지역 농산물보다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면이 바다인지라 사시사철 해풍을 맞고 자란 거제의 농산물 맛이 뛰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농업도 발달해 농사를 위해 소를 키우는 이들이 많았다.

농업 기계화가 진행된 이후 거제에서 소 사육은 비육용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농가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비육농가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중소번식농이고 사육두수가 많지 않다 보니 거제시에는 한우 사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우시장이 없어 인근 시군 가축시장에 소와 송아지를 거래하고, 비육우의 경우는 김해나 부경축산물공판장 등을 주로 활용한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전국한우협회 거제시 지부는 영세농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설립 당시 거제시지부를 이끈 중소규모의 농가 대부분은 환경규제로 규모를 늘리기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후계자에게 경영 이양되기도 어려워 차츰 영농현장에서 은퇴하게 되었다.

50~60명 남짓 되었던 회원들도 하나둘 줄기 시작하여 10여 년 전부터 회원 수가 10여 명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협회가 사실상 회의도 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지부로 10여 년간 지부 존재만 유지됐다.

그렇게 10여 년 정체기를 맞았던 거제시지부가 다시 활력을 찾은 것은 2020년 김상범 지부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김상범 거제시지부장은 취임 이후 한 2년간 사무국장, 총무 등이 협력하며 조직을 정비했다. 새롭게 지부를 창립한다는 각오로 열의로 지부 활성화에 매진했고 지난 2년간 회원 수가 2배씩 늘어나며 작지만 강한 지부로 거듭났다.

\*‘인싸’란 ‘인사이드’라는 뜻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 ‘인사이드’를 세게 발음하면서 다소 변형한 형태로 표기한 것이다.



거제시지부 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속 김상만 지부장(중앙), 배홍권 사무국장(우측), 정옥석 총무(좌측)

## 거제시지부 활성화 비결 코로나를 뚫는 부지런한 소통 생산비 절감에 한 마음 한 뜻

김상범 거제시지부장은 거제시 지부회원이 62명까지 증가하였지만, 거제시 한우사육두수가 2,000두를 조금 넘을 뿐 규모가 크지 않고 여전히 농가들은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한우농가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겼다. 거제시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을 전국한우협회 거제시지부를 통해 실시될 수 있도록 되면서 회원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상범 지부장은 “제가 취임한 직후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사실상 2년 넘게 대면 회의가 불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매년 배가할 수 있었던 비결을 꼽자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을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소통과 스킨십을 추진했던 게 주효했던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

거제시를 세 권역으로 구분하여 총회 등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회원 및 한우농가들과 스킨십 강화로 올해도 벌써 7~8명의 회원이 늘었다.

최근에는 전국한우협회 거제시지부 영농조합법인도 설립을 했다.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공동구매사업 등을 실시해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함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거제시 보조사업 대행으로 지원 늘어  
그러나 영세한 사육 여건 규제에 고통  
생축장 축소해 마을 공동퇴비장 활용 추진

지부가 시의 보조사업 등을 대행하면서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다.

시에서는 미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세규모 농가도 마찬가지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지부가 사업을 대행하면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지원 하면서 농가들의 실익이 증가한 것도 거제시 지부가 최근 활성화 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거제시 지역에는 새로운 농가가 진입할 수 없다. 사육 제한 구역이 설정되면서 좀처럼 개축, 증축도 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부속도 의무화가 되면서 축사 증축이 필요한데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마을형 공동 퇴비사 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보려 했지만,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내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은 불가능하다. 김상범 거제시지부장 등 지도부가 최근 생각해 낸 플랜B는 거제 시축협이 추진 중인 생축장 사업으로, 생축장의 가축 사육시설은 축소하고 퇴비사는 확대해 공동퇴비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사육두수가 늘거나 농가가 늘어날 수 있는 여  
지가 사실상 막혀 있다 보니 지부 살림도 어려  
운 상황이다.

김상범 지부장은 “거제시와 비슷한 면적의 타 시군의 경우 3만두, 5만두 규모까지 한우 사육이 많은 곳도 있는데 우리는 2,300여 두에 불과하다”며 “농가 수도 많지 않다 보니 회비만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부 사무실을 꾸릴 수도 없고 협회 업무를 맡아줄 사무간사도 선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상범 지부장은 이 문제를 축협과 협조를 얻어 급한 불을 끈 상황이다. 문서수발 등의 업무를 거제시축협 지도계에서 대행해 주고 있다. 축협은 회의를 위한 공간도 제공하고, 농가들이 회의하면 식대도 부담하는 등 여러모로 돕고 있다. 이러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 것도 현 지도부의 노력이었다. 농가가 없는 축협을 생각할 수 없듯이 한우조합원을 위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축협에 요청해 얻은 결과다.



앞장서는 것은 아니  
지만, 지부 회원들이 주  
축이 되어 축협이 양축가  
중심,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지속  
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자조금 사업 수행 어려움  
영세 조직은 불가능  
축협 바로 세우기  
그리고 한우농가 한마당

협회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없다 보니 한우자조금 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한 후 정산이 어려워 현재는 당분간 자조금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우맞체협, 나눔, 생산성향상 교육 등 유익한 사업들이 많은데 정산 절차를 수행할 인력과 행정업무 수행의 애로로 자조금 사업 수행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속사정을 밝혔다.

김상범 거제시지부장은 한우자조금 사업에 관해 “협회와 지부에서 대행하는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대행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관리는 물론 집행까지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시지부에서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대행해 주고 농가들은 참석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한우협회 회원들은 최근 축협 바로 세우기 운동에도 열심이다. 지부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축협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성에 차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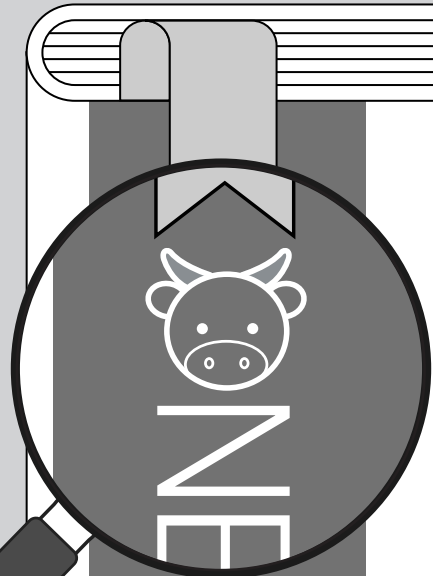
김상범 거제시지부장 거제시 한우농가들이 똥  
똥 묻쳐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을 매우 아쉬워  
했다.

김 지부장은 “이젠 코로나19가 사실상 종료돼 가는 지금, 한우 양축가들 그리고 과거 한우를 사육했던 원로 회원들이 함께하는 작은 잔치를 기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무언가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 함께 힘을 모아  
야 하는 사람들이 교류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  
이 없다고 단언하는 김상범 거제시지부장.

거제시지부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을 매년 배가시킨 실적은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완전히 풀린 이후에는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OINT LESSON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사무국장 이 중 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합천축협 등록우 전자경매시장을 가다

합천축협 등록우 경매시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등록우 경매시장이다.

특히 우량한 송아지를 구입하려는 한우농가나 송아지를 구매하여 위탁하려는 업체나 조합에서는 언제나 합천, 거창 등에서 경매되고 있는 송아지를 눈여겨 보고 있다.

<사진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스마트 전자경매시장을 개설했으며 경매 장면은 유튜브로 중계되어 언제 어디서나 경매장면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생생한 경매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외형상의 장단점이나 각종 결함, 송아지의 건강상태, 송아지 특유의 체형과 특성을 살피면서 송아지를 구입하려면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사진1> 합천축협 스마트 전자경매시장 경매 전경(필자 촬영)

## 1. 경매장에서 만난 사람들

### 가. 송아지 운송기사(허승철:35세)

송아지 운송경력 6년차인 허승철 씨는 기사들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농가에서도 송아지를 출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했다. 경매시장이 9시에 개장 한다면 경매장에는 최소 1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는 어두울 때 도착한다.

새벽에 가서 불 키는 곳도 몰라서 헤매이거나 같은 칸에 여러 마리를 기르는 곳에서는 새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미소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덤비기도 해서 매우 위험하며 실제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도 우사에서 다친 사람이 있다고 했다. <사진2>의 허승철 씨는 합천과 함께 거창축협도 지원하는데 오지마을이 많고 길이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많지만 송아지 출하 시에 농가에서 주의 할 사항을 얘기 해 주었는데 아침밥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농가에서는 사료를 많이 주면 송아지가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던 송아지가 밥을 많이 먹고 차를 타면 배가 출렁거려서 설사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는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많은 농가를 다니다 보니 누구네집 송아지는 날뛰고 어느 집 송아지는 온순한 지도 알 수가 있다고 했다.

경매장에 와서도 유난하게 날뛰는 송아지가



<사진2> 허승철(합천 가야에서 소도 키우면서 송아지 운송함)

있는데 이는 생전 처음 외출을 한 송아지가 겁을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송아지 뿐만 아니라 큰 어미소도 주인에 따라서 성질이 온순하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언제나 소와 함께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것이 좋으니 밥만 주고 도망치듯 축사를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 나. 수송아지 출하농가(김갑석:59세)

송아지 경매 전날(4월 13일) 합천축협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배포한 자료를 가지고 경매당일(4월 14일) 경매장을 찾았다.

한 집에서 송아지를 많이 출하한 농가를 찾아보니 김갑석 농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 출하한 수송아지 3두는 모두 고등등록우의 송아지이며 같은 아비(kpn1203)였다.

2010년도에 한우사육을 처음 시작했는데 소값이 하락했던 2013~14년도에도 소를 팔지 않





<사진3> 합천 등록우경매시장 수송아지 3두 출하(김갑석)

았다.

새벽에 소밥을 주고 맞벌이를 해 가면서 소를 키웠는데 지금은 번식우 90두를 포함하여 송아지 까지 150두를 기르고 있으며 큰 암소의 70%가 고등등록우이다.

송아지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능력이 좋은 암소를 계속 보유하며 좋은 송아지를 1년에 1산씩 낳아 준다면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전국 암송아지는 2,849천원, 수송아지는 3,989천원에 비하여 합천 암송아지는 3,289천원, 수송아지는 4,471천원으로 암송아지는 449천원, 수송아지는 482천원씩 비싸게 거래됐다.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축협에서 개체확인과 친자확인을 해 주고 있으며 암송아

지는 뿔도 제각을 해주는 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구매할 농가들이 길러보면 성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합천 송아지를 좋아하며 전국적으로 좋은 송아지를 구입 하려면 합천으로 온다고 한다.

이 날도 운송차량을 살펴보니 경북, 전남, 경남 등 여러 지역의 차들이 여러대 보이기도 했다.

#### 다. 송아지 구입농가 김정학 대표

경매가 끝난 후에 좋은 수송아지가 보기 좋게 매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송아지는 누가 구입했는지 알아보니 경남 의령의 김정학 대표라는 분이 구입했다고 했다.

<사진4>를 보면 언뜻 보아도 우량한 송아지를 구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좋은 송아지로 26두를 구매했는데 김대표는 송아지를 고를 때 규격이 큰 것도 사지만 어미 소의 계대가 3계대 이상이면 사자는 3산 이상의 송아지를 구매 한다고 한다. 송아지 체격은 중간 이상의 체형을 구매하며 체고(키)가 높고 체장(몸길이)이 길면서 입이 크면 먹세도 좋으니까 입이 큰 송아지를 골라야 한다. 아울러 꼬리가 긴 송아지를 고르며



<사진4> 김정학 대표가 구입한 수송아지(필자 촬영)

모색이 붉은색은 등급이 잘 안나와서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좋은 송아지를 고르려면 오랜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구입한 송아지를 직접 키워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 2. 경매장의 조합장

합천축협 김용욱 조합장은 축협직원 출신이면서 한우개량에 열심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다.

경매장에 나와서 조합원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합천농가의 등급판정 자료부터 직접 운영하는 생축장에서 키우려는 송아지의 능력을 다운받아 가지고 다닌다. 오늘도 우량한 암소에서 태어난 좋은 송아지 자료를 가지고 왔다.

“소 100두를 키워서 150두를 키우는 사람과 소득을 같게 하려면 개량을 하고 소를 잘 키우는 일밖에 없다.”

합천에서는 소만 잘 키우면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팔아주고 엘리트 카우(우량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는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관내 농가에서 입식을 하면 1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합천군 자체로 저능력암소 600두를 도태했는데 이는 관내의 우량한 씨암소가 많이 남도록 행정기관에서 60만원의 저능력우 도태지원금을 지급한다.

합천축협은 전국에서 스마트 전자경매시설을 가장 먼저 도입 했을 뿐만 아니라 암소의 뿔이 크면 경쟁심이 높아지므로 암송아지 제각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우량한 암소가 송아지를 많이 잘 낳으려면 좋

#### 기간별 경매집계표

No	경매일자	경매대상	등록구분	성별	두수	평균(Kg)	응찰하한가 평균금액(A)	낙찰가 평균금액(B)	최고가	최저가
1	2022-04-14	송아지	등록	암	96	243	2,302,083	3,298,750	5,110,000	1,690,000
2		송아지	등록	수	150	251	3,602,667	4,471,533	5,900,000	1,860,000
		[일 계]			246	247	2,952,375	3,885,142		

<사진3> 합천 등록우경매시장 수송아지 3두 출하(김갑석)



은 체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산우의 발굽손질도 축협에서 무료로 해 준다.  
김 조합장은 “좋은 송아지는 하락폭이 적고 나쁜 송아지는 하락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좋은 송아지가 계속해서 많이 태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구입하려는 암송아지는 OPU(생체난자직접채취)방식으로 700두 규모의 수정을 실시하여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암송아지이다.



형매정보

순위	등록번호	개체 식별번호	등록구분	성별	생년월일	씨수소명	최종 심사 점수	도축성적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유방등급	도축일
1	228632641	002109349705	월통	암	2016-06-09	KPN958	79.55					
2	229281780	002119282773	월통	거세	2017-06-10	KPN990		609	145	11	1++	2019-12-23
3	229895216	002131249834	고등	암	2018-06-21	KPN1049	81.25					
4	230878398	002141137789	월통	거세	2019-07-11	KPN1060		599	108	14	1++	2022-01-12
5	231565920	002155809644	월통	암	2020-07-26	KPN1212						
6	232591947	002166932794	월통	암	2021-08-10	KPN1352						

<사진5> 우량송아지를 설명하는 김용욱 조합장 <자료2> 경매 암송아지의 형매 성적(한국종축개량협회등록자료캡처)

<자료2>에서 맨 밑의 6산차 암송아지의 형매 도축성적이 아주 좋아서 최저 입찰가격은 250만원인데 450만원에 낙찰을 받은 송아지는 생축장으로 가서 키우면서 우량한우 생산에 기여할 것이다.

이 송아지는 능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등폭이 다른 송아지에 비해서 매우 넓으며 얼굴이 넓고 짧으면서 눈과 눈 사이가 넓고 평평한 좋은 송아지란다.

합천에서는 소 잘키우는 사람 200명을 육성해서 1년에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우



<사진6> 등이 넓은 송아지(3279)



<사진7> 얼굴이 넓은 송아지

개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니 이 지역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은 복이 다투어 굴러온 것 같다.

전국의 많은 축산관련 지도자 분들이 모두 이런 마음을 지녔으면 대한민국 한우산업은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3. 마무리

합천축협 김태옥 경매팀장은 오늘 경매가격이 올랐다고 송아지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경매석에 앉아 있어도 기운이 난다고 했다.

합천축협 경매장에는 관내의 소들만 경매장에 출하하며 판매는 전국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합천 한우농가의 소득이 올라가서 기운이 난다고 한다.

경매가 끝나면 전 직원이 함께 소 운반차량까지 송아지를 옮겨서 실어주니 타 지역에서 송아지를 사러 와도 부담이 없으며 지난해에는 온라인 경매도 실시하여 직접 송아지를 구입하러 합천에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 가장 많이 송아지를 구입한 농가와 함께 기념촬영을 요구했더니 두 분 모두 쾌히 승낙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합천의 한우농가들은 좋은 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전국의 한우농가들은 우량한 송아지를 구입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



<사진8> 김용욱 팀장(왼쪽)과 김정학 대표(오른쪽)



## 김재경 원장의 한우 키포인트 이것만은 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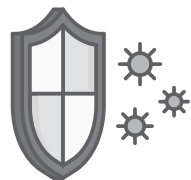
많은 농가가 한우를 사육하다 보면 헛갈리거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서 소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오랜 기간 수의사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노하우들과 현재 “소앤소 김재경원장”이라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우 농가들이 쉽게 질병이나 사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재를 해보려고 한다.



**Q** 최근 번식우들을 입식한 초보 농가입니다.  
곧 송아지들이 곧 태어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송아지들이 태어나면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점검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우리 집 송아지를 어떻게 하면 질병 없이 건강한 송아지로 키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신 축산인 이라면, 다음의 사항들을 체크해보고 실행한다면 분명 건강하게 송아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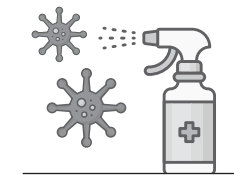
### 질병은 치료가 아닌 예방이 우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이, 송아지 설사예방백신이 가장 기본입니다. 보통 설사예방백신은 어미 소에게 분만 6주전, 4주전 총 2회 주사하게 됩니다. 백신의 시기를 맞출 수 없는 경우에도 최대한 시기 상관없이 2번은 놓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투약 시기를 놓쳤다면, 다소 효과는 떨어질 수 있으나 송아지가 태어난 직후(초유 먹기 전)에 백신을 경구로 투여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습

니다. 가끔 “그럼, 송아지에게만 백신을 하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송아지가 어미 소에게 받은 모체이행항체가 백신(항원)을 중화시켜 면역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송아지에게 생후 3일부터 유산균, 생균제, 효모제, 낙산 등을 급여하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반추위 내 휘발성 지방산을 증가시켜 반추위를 자극 하여 송아지의 일당 증체량을 높일 수 있으며 우량송아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유산균, 생균제, 효모제 등을 직접 먹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캡슐형태로 나온 제품 등 강제급여가 용이한 제품들을 이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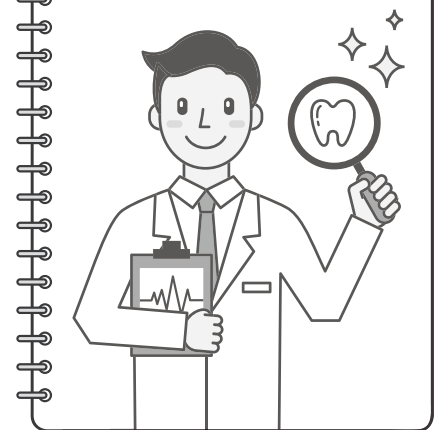


### 초유 포유 전 어미 소의 유방을 세척 및 베타딘으로 소독

유방의 세척과 소독은 설사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출산 직후의 어미소가 예민한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오염된 어미의 젖을 송아지가 먹게 되면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설사 뿐만 아니라 식이성(소화불량성)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송아지는 첫 2주 동안은 4위에서만 우유를 소화시키며, 소화효소가 4위에서 방출되어 지방, 탄수화물 및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건강한 송아지의 경우 제 4위에서 생성된 위산에 의한 살균작용과 장내에 있는 면역물질들이 장내세균과 싸워서 설사를 예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유방의 세척과 소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 체크리스트

- ✓ 초유 포유 전  
어미 소의 유방을  
세척 및 베타딘으로 소독
- ✓ 송아지의 체온 유지
- ✓ 송아지의 배꼽 소독







## 출생 직후 송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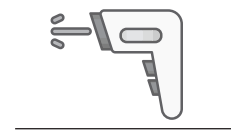
초유는 출생 후 48시간 동안만 송아지 체내로 흡수 되는데, 초유의 적당 급여량은 체중의 8~10%이지만 가능한 많은 양을 먹여줘야 추후에 질병치레 없이 송아지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유에는 1L당 보통 20g의 면역항체가 들어있는데, 48시간 동안 최소 6L의 초유(120g의 면역항체)를 먹여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 입니다. 하지만 어미 소 마다 초유에 함유된 면역항체의 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아지가 초유를 먹기 전에 먹이는 항체초유(캡슐형, 튜브형)나 분말초유 500ml를 급여하면 부족한 면역항체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초유 먹기 전 비타민AD3E제를 0.5cc(300,000IU/ml 기준)량을 주사하고 경구투여하면 송아지가 초유를 더 잘 먹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송아지에게 초유급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미 소의 폐사 또는 난산 등으로 인한 출산 후유증이나 광폭의 상태에서는 송아지에게 초유를 먹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미 소를 보정기로 고정하거나 다리 하나를 묶어서 송아지가 초유를 먹을 때 발길질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송아지가 초유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송아지들이 있는데 대개는 보통 ①양수가 뱃속에 남아있는 경우(콧구멍을 자극해서 양수를 뱉게 하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서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고, “제스롱”을 주사) ②홍치가 있는 경우(강제로 잇몸을 벗겨준다) ③난산으로 힘들게 태어난 경우(강제로 초유를 급여해 기력회복을 시킨다)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 카테터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초유를 강제로 급여 하는 것이 송아지에게는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테터(강제 급이기)를 사용할 때는 양다리로 송아지가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보정한 후에 카테터의 호스가 기도나 아닌 식도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 후 급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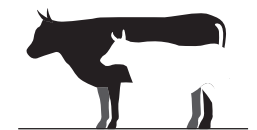
## 송아지의 배꼽 소독

송아지가 태어나면서 탯줄은 자연스럽게 오염이 되는데, 이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배꼽염증(제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염은 배꼽이 붓고 말랑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누런 고름이 생기며, 복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제대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베타딘(포비돈)로 소독해서 배꼽염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배꼽탈장과 비슷하게 배꼽이 부어오르지만, 배꼽탈장은 복강쪽을 만져보면 구멍이 느껴지며 이런 경우에는 수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 송아지의 체온 유지

송아지가 태어나면 체온 보호를 위해 마른 수건으로 온 몸을 마사지 하듯이 닦아줍니다. 특히, 코 주변을 잘 닦아 주어야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송아지는 성우에 비해 체지방이 적고, 제 1위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효열이 적어서 체온조절을 할 수 있는 임계온도가 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보온등의 설치, 건조한 깔짚의 사용, 송아지 방한복, 외풍의 차단 등을 통해 송아지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어미소의 모성애 확인

초산우의 경우, 난산으로 인해 분만 시 고통이 컸던 암소 등은 경험부족이나 통증으로 인해 송아지를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미 소가 송아지에게 관심이 없다면 송아지 몸에 사료가루, 생균제, 첨가제 등을 몸에 묻혀 송아지를 활도록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가끔 갇난 송아지의 털들이 빠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성애가 뛰어난 어미 소가 송아지를 너무 많이 핥아줘서 그런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아지 제대염과 탈장)





# 컨설팅을 통한 한우의 피부병 및 대응 방안

글. 지엠디컨설팅



최근에 컨설팅을 수행 하다보면 많은 농장에서 피부병 또는 외부 기생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한우의 피부병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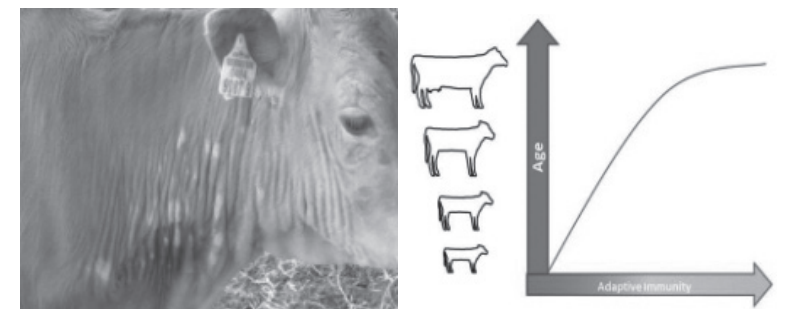
## 송아지 버짐

송아지 버짐은 잘 알고 있는 피부 진균병이다. 피부사상균 또는백선균이라고 불리는 곰팡이의 일종이다

만성 접촉성의 곰팡이성 피부병으로 피부에 둥글고 융기된 소양감(가려움증) 병소가 생기는데 Trichophyton 종류의 진균(곰팡이)이 병인체로서 가려움증으로 인해 감염 개체를 괴롭혀 심한 증체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송아지로서 일반적으로 11월부터 5월 사이에 발병하는데 역시 겨울공기가 건조한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보균우와의 접촉, 진균의 부착 장소와의 접촉으로서 동거우에게 전염된다.

다른 송아지에도 전염되기 때문에 발병초기의 조기치료가 기본이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치료 하여야 한다는 한가지 이유가 가려움에 의한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증체의 저하, 이로 인해 송아지의 평가나 판매가격을 내리게 함으로서 한우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그림1>  
소버짐 발생시기  
(면역력이 낮은 송아지시기  
주로 발생



버짐의 발생시기로 보면 포유전후(15일~1달) 발생하느냐, 이유전후 발생하느냐에 따라 상황을 분리 할 수 있는데 포유전후 발생은 어미젖의 문제 즉 젖의 질과양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만전후 관리를 통하여 초유의 품질 및 우유의 품질을 높이고 섭취량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우사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잠복기가 긴 곰팡이 균의 특성상 이를 통하여 근절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송아지의 충분한 초유 및 우유 섭취량을 확보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 할 수 있겠다. 이유전후 발생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유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경우에는 이유 전 후 사료섭취량이 면역력을 유지 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조치사항으로는 이유전 지속성 항생제, 비타민 주사, 구충, 생균제 강투여등 이유전 조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치료에는 항진균 항생물질이 이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바세린을 이용한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먼저 진균이 호기성균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진균으로의 산소공급이 단절된 혐기성 (공기가 없음) 상태이고 또한 포자 (곰팡이로서 포자에 의해 전염된다)의 확산을 방지하고 진균의 증식, 전염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바세린을 도포함으로서 상처의 회복효과도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알려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유황연고 450g과 카네스텐 분말 20g을 잘 바세린과 혼합한 다음 2~3일 간격으로 3~4회 환부에 바르면 비교적 치료가 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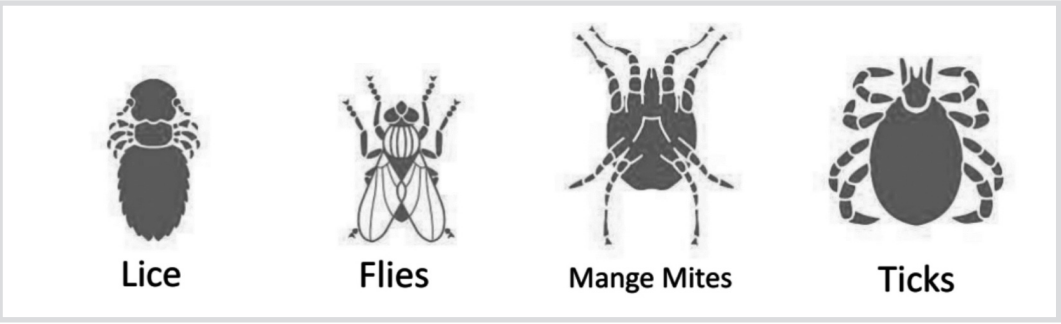
앞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버짐에 있어서는 송아지의 면역을 높이고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 시에는 직접적인 치료와 영양적인 보강이 있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외부 기생충

최근에 농장을 컨설팅 해보면 번식우 또는 비육구간에서 둔부와 목주위 털이 빠진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가려움에서 기인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대부분 외부 기생충에 기인하고 개선충(웜) 또는 이가 대부분이다. 두 외부 기생충 모두 소의 피부를 파고들어 순환감염을 일으키면서 우군내로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림2> 대표적인 외부 기생 해충 종류



<그림3>  
구충제의 종류 및 사용법

Table 1. Cattle Parasiticides		
Products (Trade Name)	Parasites	Methods
Levamisole (Levasole <sup>1</sup> , Tramisol <sup>1</sup> , Totalon <sup>1</sup> )	Stomach worms <sup>1</sup> , lung worms <sup>1</sup>	Drench, injection <sup>1</sup> , pour-on, bolus, feed, block
Fenbendazole (Safe-Guard <sup>2</sup> )	Stomach worms <sup>2</sup> , lung worms <sup>1</sup>	Drench, paste, feed, block
(Panacur <sup>3</sup> )	Stomach worms <sup>2</sup> , lung worms <sup>1</sup> , tapeworms	Drench, paste
Oxfendazole (Synanthic <sup>3</sup> )	Stomach worms <sup>2</sup> , lung worms <sup>1</sup> , tapeworms	Drench, paste, injection <sup>1</sup>
Albendazole (Valbazen <sup>3</sup> )	Stomach worms <sup>2</sup> , lung worms <sup>1</sup> , common liver fluke, tapeworms	Drench, paste
Moxidectin (Cydectin <sup>4</sup> )	Stomach worms <sup>2</sup> , lung worms <sup>1</sup> , grubs, sucking lice, mange mites, biting lice, horn flies	Pour-on
Eprinomectin (Eprinex <sup>4</sup> )	Stomach worms <sup>2</sup> , lung worms <sup>1</sup> , grubs, sucking lice, mange mites, biting lice, horn flies	Pour-on
Doramectin (Dectomax <sup>4</sup> )	Stomach worms <sup>2</sup> , lung worms <sup>1</sup> , grubs, sucking lice, mange mites, biting lice <sup>5</sup>	Injection <sup>4</sup> , pour-on
Ivermectin (Ivomec <sup>4</sup> )	Stomach worms <sup>2</sup> , lung worms <sup>1</sup> , grubs, sucking lice, mange mites, biting lice <sup>5</sup> , horn flies <sup>5</sup>	Injection <sup>4</sup> , pour-on, bolus <sup>6</sup>
Ivermectin + Clorsulon (Ivomec Plus <sup>4</sup> )	Stomach worms <sup>2</sup> , lung worms <sup>1</sup> , grubs, sucking lice, mange mites, common liver fluke	Injection <sup>4</sup>
Clorsulon (Curatrem <sup>4</sup> )	Common liver fluke	Drench

<sup>1</sup>Adults, developing larvae; <sup>2</sup>Adults, developing larvae, inhibited larvae; <sup>3</sup>Pour-on; <sup>4</sup>Subcutaneous; <sup>5</sup>Intraruminal; <sup>6</sup>Sustained release

심한 가려움을 유발 하기 때문에 털이 심하게 빠지는 것이다. 발생시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생활사의 문제가 가장 크며 이런 이유로 농장에 한번 발생하면 치료에 장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행히 두 기생충의 경우는 이버멕틴의 사용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는 번식우의 경우 조산과 사산을 걱정하여 구충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출하시기와 관련하여 출하 및 비육단계 구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 대부분이며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부기생충으로 인한 일차적인 피해는 가려움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섭취량 감소라고 할 수 있으며 해외연구자료에 의하면 이로 인한 일당증체량 감소는 45~225g/d 내외 까지 발생한다고 한다. 작은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월간 20,000~1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특히 비육우의 경우는 섭취량 감소로 인한 육질적인 기댓값을 생각한다면 피해액은 더욱 커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치료 및 예방의 경우는 이버멕틴 주사, 경구투여, 뿌리는 것 모두 효과가 있으며 가능한 우군내 개체를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계절적인 일시 구충을 실시한다면, 구충이후 3~4개월 정도가 구충제가 유효 하므로 올해 발생시기를 참고하여 구충 스케줄을 계획하여야 한다.

구충과 피부병에 의한 피해는 농장운영에 있어서는 매우 작은 부분이며 귀찮은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피해가 조금씩 진행 되므로 결국에는 큰 피해를 보고 만다. 작은 부분이지 만 기본에 충실한 관리만이 생산성의 기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 가업자산 증여세 연부연납특례제도 활용 체크포인트

정부는 2022년 시행 주요 개정 세법 중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 5년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이 조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5년 그대로 두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만 10년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연부연납특례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살펴보자.



## 가업자산 증여세 연부연납특례제도 활용 체크포인트

- ✦ 연부연납특례제도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된 경우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 ✦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신청요건과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일반 상속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
- ✦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 후 상속 주식을 양도할 경우 추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 주식을 일부 매각할 예정이거나 상속 감자를 고려할 때는 일반 상속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 가업 상속 시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함.
- ✦ 단, 총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 재산가액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만 최대 2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나머지(非가업상속비율) 상속세는 일반상속재산 기준에 맞게 연부연납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자금 마련에 유의해야 함.

연부연납특례제도는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된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부득이 사업용 자산 등을 급히 매각하면 사업 유지의 곤란,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부연납 요건

구 분	내 용
연부연납 요건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나 납부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④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한 경우일 것 다만, 아래 1~4의 납세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봄
연부연납 시 제공하는 납세담보 종류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실제 상속이 발생하면, 가업자산(가업주식 등)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전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로워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일반 상속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표 2> 가업상속공제제도

항 목	내 용	비 고
가업의 범위	피상속인 사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 계속 가업 경영 거주자
	지분율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50%(상장기업 30%) 이상
	대표이사 기간	가업 기간 중 50% or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or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
	가업 형태	조특법상 중소기업 or 중견기업(매출액 4000억원 미만)
상속인 (그 배우자) 요건	상속인 연령 등	18세 이상 공동상속 허용
	가업 종사 개시	상속개시 전 가업 종사 기간이 2년 이상(65세 이전 사망, 천재지변 사망 등/병역, 질병, 취학 등 예외 확대)
	임원 취임	상속세 신고 기한 내
	대표이사 취임	2년 이내
사후 관리 요건	가업 종사	7년간 종사(휴·폐업 불가) *중분류 내 업종 변경 가능
	가업자산 처분 금지	5년간 90%, 다음 2년간 80% 유지(7년간) 예외 허용



##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표 4> 연부연납특례제도 요건 및 취소 사유

구 분	내 용
상속세 연부연납특례제도 요건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2020년 2월 11일 개정)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100(거래소 상장법인 30/10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해 보유할 것 ④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30/100 이상의 기간 2)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한 날 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이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020년 2월 11일 개정). ④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취소 사유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상속재산의 50/10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각 항목의 예외 사유가 있으니, 별도 확인 필요



**박 철** 수석팀장  
삼성생명 강남법인  
삼성생명에서 VIP고객의 상속  
증여, 세무, 투자, 부동산 등  
자산관리 전반에 걸친  
재무 컨설팅을 하고 있다.

**컨설팅 문의**  
Tel. 010-5270-0278  
Email. sj0276@hanmail.net

항 목	내 용	비 고
사후 관리 요건	지분율 유지	7년 내 지분율 감소 불가(기업공개 25% 이상 예외 有)
	고용인원 유지	7년간 근로자의 수 및 총급여 수준 유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1배)

※ 가업상속공제= MIN(가업상속재산가액×100%, 한도: 10(20, 30)년 이상 200억(300억, 500억)원

기업 상가속재산가액=주식×\*사업용 자산 비율

\* 사업무관 자산: 비사업용 토지, 임대부동산, 대여금, 직전 5년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현금, 영업 활동과 무관한 금융 상품 등

또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당장의 상속세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향후 상속 주식을 양도할 경우 추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억원에 설립한 법인이 상속 발생 당시 100억원으로 평가되었고, 가업상속공제(사업용 비율 100% 가정)를 통해 상속세 전액을 공제받았다면, 향후 상속인이 주식을 100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100억원-100억원(상속 당시 주가)=10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1억원=99억원]이 된다. 즉 상속세 감면받은 부분을 주식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을 일부 매각할 예정이거나 상속 감자를 고려할 경우, 일반 상속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일반 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이 아니라,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연부연납특례제도를 활용해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이라면 연부연납 허가 이후 최대 5년 거치 후 1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총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만 최대 20년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비가업상속비율) 상속세는 일반 상속재산 기준에 맞게 연부연납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자금 마련에 유의해야 한다.

연부연납 시 매년 납부할 연부연납 금액은 [표 3]과 같으며, 연부연납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부연납 선택 시 각 회분 분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한다.

<표 3> 연부연납 금액

구 분	연부연납 기간	매년 납부할 연부연납 금액
일반 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선택	<u>연부연납 대상 금액</u> (연부연납 기간 + 1)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내에 선택(총 10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내에 선택(총 20년)	

※ 첫 회분 분납 시 납부할 연부연납 가산금=연부연납 허가 총세액×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 납부 기한까지 일수×연부연납 가산율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율(2022년 1월 17일 현재 연 1.2%)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

또 연부연납 요건을 충족해 상속세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라도 가업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연부연납 취소 사유([표 4] 참조) 등에 해당하면 일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기에 연부연납 시 사후 관리 요건도 잘 지켜야 한다.

상속 준비가 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연부연납특례제도를 활용하면 단기간에 준비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감자 등 상속세 절세와 관련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한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탄소중립과 생산비 절감 두 마리 토끼 잡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최근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보이는 전기자동차라 할 수 있다. 불과 2~3년 전에는 가끔 보이던 전기자동차가 최근에는 큰 도로 신호 대기 중에도 1~2대 파란색 번호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주변으로 탄소배출 저감이 가깝게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이다.



글 윤석준 박사  
(농협사료 마케팅본부 R&D센터)

우리가 소를 사육하는 현장 주변에서도 우사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 역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우를 사육하는 현장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보려 한다. 한우는 반추(발효)위를 가지고 있는 동물로 섭취한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혐기적(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미생물들이 발효하는 특성이 있다.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를 통해 배출되는 메탄 발생량은 전 세계 메탄 발생량의 17%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방향성에 맞추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축산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정책 중 하나로 2022년 7월부터 변경되는 사료 성분 등록기준 변경과 종전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출하 전 절식’ 등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우리 한우 사육 농장에 적용되고 있어,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우의 사육단계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탄소배출을 줄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한우는 반추위가 있고, 반추 작용을 하는 동물로 포유류 소목 소과의 동물로 소화과정 중 반추운동을 하며,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바꿀 수 없다. 여러 종류의 수많은 미생물이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섭취한 먹이의 발효과정 중 이산화탄소, 메탄, 휘발성지방산 등이 생성된다. 이런 근원적 소화 특성에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우선 고려해 볼 것에 대하여 3가지를 요약해 보려 한다.

## 첫째는 번식우의 사양관리 방법의 개선이다.

현재 한우 인공수정을 통하여 개량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 결과로 해마다 도체중 및 근내지방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특정 KPN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길 정도로 개량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은 모든 한우농가에 서 체감할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특정 KPN 번호의 결과가 모두 같은 결과의 도축 성적을 나타내는가? 라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출하 성적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개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농장에서는 태어난 당일 송아지 체중을 매우 중요한 관리지표로 정해놓고, 번식우의 사양관리를 세밀하게 하고 있다. 우수형질의 인공수정 정액과 태아 단계에서 시작된 유전력의 극대화가 필요하겠다. 그 방법으로 분만 전 2개월 전부터 증량급여, 분만 전 혼합백신 주사 및 비타민제 급여 등 신생 “송아지의 생시체중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방법 개선이 필요하겠다.



## 둘째로 높은 생시체중의 송아지가 태어난 이후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초유 급여관리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어미소의 분만 산차 3~4산 송아지들이 우시장에서 높은 단가를 받는 비율이 높다. 그 차이점은 어미소의 체성장이 완성된 후 태어난 송아지들에게 양질의 초유를 공급한 결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초산우의 초유와 3산 어미소의 초유는 색상과 점도 면에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우산업에 대한 관측정보 자료 및 통계자료 등을 기준으로 예상해 보면 2025년까지 한

우 사육두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마릿수의 증가는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우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며, 특히 저산차 분만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대용초유의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신생 송아지의 분만 직후 4시간의 골든타임에 대용초유를 적용

하게 되면 초기 면역, 영양에 공백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신생송아지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

## 셋째는 이유체중의 극대화다.

농장의 관리 방법 및 관리 수준에 따라 이유 방법은 매우 큰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체중의 극대화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함께 고민해볼 방법으로 우선은 번식우의 번식 형질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겠다. 생시체중이 높은 송아지가 일반적으로 이유체중이 좋다는 의미 이상의 관리가 필요하다. 번식 형질이 우수한 암소를 수치

로 판단하게 된다면, 번식우의 선발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 우수한 번식우만 남겨 놓게 된다면 번식 효율 및 우수한 송아지 생산은 자연스럽게 선순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번식우에게만 이유체중 증진의 책임을 줄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농장의 관리에 있어 대용유의 적용, 전용 입불이기사료 급여, 생후 30일 이내 조사료 급여 제한 등이 이유체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수한 송아지의 초기성장 극대화는 현장의 모든 농가에서 공감하고 있고, 그 결과로 우시장에서는 개월령 대비 높은 체중의 송아지가 높은 단가로 낙찰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왜 높은 단

가를 써서 좋은 송아지를 사 오는가? 그 목적은 높은 출하 단가(매출액 극대화)를 받기 위함이다. 어렵지 않게 생체중 1.2톤 슈퍼한우의 출현을 신문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다. 그만큼 한우의 유전력과 사육기술이 고도화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유전력이 고도화된 우수한 한우에 대한 탄소배출 저감에 다양한 시도가 있는 요즘이다.

반추동물의 소화기관 내 발효 생리를 우리가 바꿀(단위 동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사육 기간에 대한 단축과 품질 고급화는 상반된 방향성을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하겠으며, 그 방법으로 초기성장이 우수한 송아지의 높은 이유체중으로 시작되어 사육 기간 단축과 품질 고급화로 마무리되어야 하겠다. 현재 사육 기간 단축은 한우산업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현행(약 30.5개월)에서 약 3개월 사육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약 10%에 해당하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출하 생체중을 동일하게 하고, 등급출현 비율을

유지 및 상향하면서 사육 기간 단축이 가능할지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우선 현장에서 10%만큼의 기간 단축은 입식과 출하의 간격을 단축하게 하여 출하 두당 운영경비를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사료요구율이 현재 수준이라면 어떤 결과로 연결될지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이렇듯 사육 기간 단축의 예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료회사 차원으로는 원료 및 제조 품질의 향상 그리고 사료 효율 극대화 전략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으며, 현장 차원에서는 사육밀도 조절 및 사양관리 수준 향상 등의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아주 강력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외적 요인에도 한우의 고급화를 고도화해 왔으며, 해마다 거세비육우의 출하 월령을 단축해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장의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늘 그러했듯 세상의 변화에 우리는 대응하고, 적응하고, 개선해 왔다. 탄소중립이라는 어려운 관문 역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적극적인 돌파가 필요하겠다.





한우식당 기행(5)

암소한마당



경남 남해군 이동면 강진만로 200-6

연중무휴(11:30~2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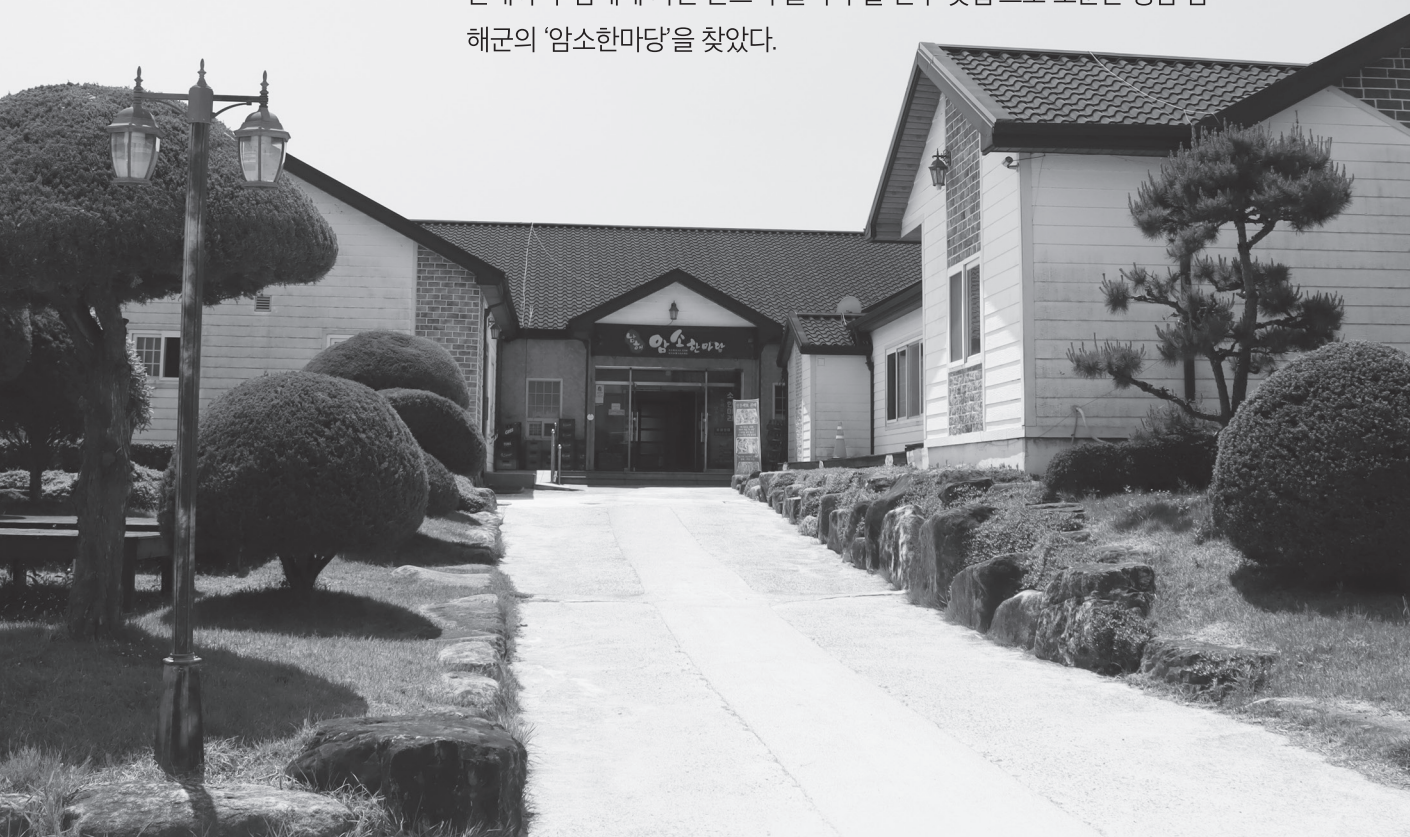
☎ 055-863-9999

## 미경산 암소 전문 판매점 남해 맛집 ‘암소한마당’

해풍 맞고 자란 암소 한우 전문점 ‘입소문’ 자자  
바닷가 인근 농장서 직접 사육·판매하며 신뢰 얻어

경남 ‘남해군’은 바닷가 풍경이 아름다워 전국에서 여행지 추천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고즈넉한 남해의 해안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다 보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한 폭의 ‘그림 같은 농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안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한우 농장인 동시에 농장에서 키운 한우를 직접 판매하는 남해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다. 바닷가 옆에서 한우 농장을 경영하며 식당을 열고, 직접 사육한 한우를 판매하며 ‘남해에 가면 반드시 들러야 할 한우 맛집’으로 소문난 경남 남해군의 ‘암소한마당’을 찾았다.



### 어려서부터 남다른 가축 사랑

‘암소한마당’의 입구엔 꽃들과 돌, 나무가 정성스럽게 가꾸어져 바다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더한다. 잘 정돈된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우측엔 바다를 보고 있는 농장이, 그 옆엔 식당이 있다.

농장이 있다는 설명이 아니라면, 소들이 사육되고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냄새 관리는 완벽한 수준이라 더 놀랍다. 암소한마당 하세길 대표는 1977년부터 이곳에서 축산을 시작했다.

홀어머니 아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어려서부터 집안의 농사일을 전담하는 가운데서도 토끼와 염소를 키우는 등 가축 사랑이 유난했던 그는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농고 축산과에 진학하며 꿈을 키워갔다.

축산을 공부했지만, 학교 졸업 후 그가 시작한 일은 고기를 잡는 일이었다. 목돈을 벌어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직접 배를 만들었다.



“게, 새우, 낙지, 서래, 도다리 등을 잡아 팔았어요. 공무원 급여가 한 달에 4만 원이었는데, 배를 타고 나가면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으니 쏠쏠했지요. 그렇게 5년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별이는 괜찮았지만, 가슴 한쪽은 늘 허전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생활에 ‘미래 비전’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77년 돼지를 입식하는 것으로 축산과 인연을 맺었다.

### 농장과 정육점 겸업하며 ‘전문 식견’ 쌓아

그토록 좋아하는 가축을 키우게 됐지만 당장에 시련이 찾아왔다.

입식한 돼지를 출하할 무렵 돈가 대파동을 맞은 것이다.

시련은 혹독했지만, 다행히 끝은 있었다. 사료값도 대지 못해 빚더미에 앉아 시름 하던 몇 년이 지난 후 돼지 값이 폭등하며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 돼지를 팔아 빚을 모두 청산한







해변도로 바로 옆에 자리잡은 남해 암소한마당 입구 전경 모습.

그는 82년 송아지를 입식하는 것으로 한우 사육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한우 사육이었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았다.

입식한 소를 출하할 시점이었던 84~85년에 이번엔 소 값 폭락을 맞았다.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수준으로 소 값이 떨어지자 그는 수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정육점’을 열어 사육한 소를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어떻게 서든지 본전이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마땅한 자리를 물색해 가게를 열고 내가 키운 소를 직접 팔기 시작했죠.”

하 대표는 농장과 정육점을 함께 경영했던 이 시기가 자신의 한우 사육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터득한 값진 시기라고 말했다. 고기는 물론 소의 내장까지 확인할 수 있었기에 소의 소화 과정과 반추위 발달, 생리에 대해 누구도 갖지 못한 ‘현장형 전문 식견’을 쌓게 됐다.

직접 사육과 도축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생산에 접목해 매진하던 가운데 2011년 제2의 소 값 파동은 그에게 또 다른 도전의 기회가 된다. 정육점에 이은 ‘한우식당’ 창업을 결심한 것이다.

## 2011년 소 값 파동으로 식당 창업... ‘미경산우’로 승부

지금의 해안도로가 나기 이전이었지만, 이곳에서 나고 자란 그는 예전부터 농장이 자리한 지금의 위치가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해 수십 년 전부터 농장 인근의 땅 한 필지씩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2011년 농장 옆에 ‘암소한마당’을 열게 됐다.

60여두 규모의 기존 농장은 물론 인근에 1백두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며 열의를 불태웠다. 처음엔 송아지 분만 경험이 있는 경산 암소를 비육해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도전과 열정으로 시작한 식당이었지만 이 또한 시행착오가 있었다.

정육점과 식당의 차이는 고기를 사가면 끝인 정육점과 달리 식당은 고기를 먹고 나온 손님들의 반응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당시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한우사육에 관해선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그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식당 개업 한 달 만에 대상포진까지 얻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예상치 못한 식당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 한 건 ‘미경산우’였다. 미경산우와 경산우를 먹은 고객들의 반응이 다른 데다, 1등급 미경산우를 먹은 고객 반응이 1+, 1++등급 경산우를 먹은 소비자보다 반응이 좋았던 점을 눈여겨보았던 하 대표는 미경산우 비육에 매진했다.

2012년부터 식당 경영은 미경산 암소 판매로 모두 전환했다.

이후 식당을 찾은 고객들의 반응은 호불호가 있었던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인생 한우를 만났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남해를 방문하면 들러야 할 맛집이 아니라 ‘암소한마당을 가기 위해 남해를 가야 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날 정도로 맛에 대해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 미경산 암소 고급육 만들려면....

미경산우는 고급육을 만들기도, 크게 키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암송아지 비육과 관련한 그의 철칙은 좋은 송아지와 사료 급여 그리고 바닥관리다.

“좋은 송아지를 보면 느낌이 온다”는 하 대표는 체고가 높고, 허리가 긴 송아지를 좋은 송아지로 꼽았다. 얼굴은 길어 말상을 하고, 입은 크면 좋다. 뿔은 크면 좋지 않다고 했다.

하 대표는 좋은 송아지의 경우 1백만 원씩의 웃돈을 줘서라고 구매한다.

입식한 송아지는 한 달간 티모시와 알팔파 등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며, 미아리산과 비타민을 함께 급여한다. 이렇게 한 달을 키우면 송아지 키가 쭉 커지며 출하 시기 850kg~1톤에 달하는 슈퍼한우로 키울 수 있다. 육질의 경우 90% 이상이 1++등급이다.

“한우농가 대부분이 벚짚을 많이 선호하는데, 벚짚도 15cm 이상 길게 잘라줘야 1위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벚짚이 너무 짧으면 위벽이 얇아지며 위 발달이 퇴화합니다.”

환기는 하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양 포인트이다.

농장의 소들은 한두 마리를 빼곤 바닥에 누워 되새김질하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만큼 바닥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입자가 너



한우암소소페셜(500g) 123,000원  
한우암소 꽃살, 새우살(100g) 37,000원  
한우암소 등심(120g) 25,000원  
한우암소 생모듬(120g) 15,000원  
즉석 불고기 (150g) 12,000원 및 식서류 일체 있음.

무 가늘지 않은 소나무 톱밥을 깔아주는 것도 있지만 바닷가에 있는 천혜의 농장 환경 탓에 바닥은 늘 뽕송뽕송하다.

“파도가 쳐서 농장 쪽으로 북동풍 바람이 불 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뽕얀 소금기가 올라온다”는 그의 말에 따르면 해풍으로 인해 축사 바닥의 이산화탄소나 암모니아로 인한 영향이 없어 소들은 건강하고 고기 맛도 좋다.

건강한 사육환경 덕분에 농장의 폐사율은 ‘0’이다. 출하 시기에 있는 소들의 생시체중이 1톤에 가까워 넘어질 경우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비해 농장에 CCTV를 설치해 밤과 새벽 시간을 정해두고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로 2년은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 대표는 “정육율이 높은 내 소를 갖다 팔지 않았더라면 벌써 망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식당도 더욱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과는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도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농장과 식당을 이어가게 될 아들이 한우와 관련해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지 기대해봅니다.”



2022

# 4월 한우동향분석

글.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한우사육) 2022년 4월 한우 사육두수 두수 전월·전년 동월 대비 증가, 가임암소 두수 전월 대비 감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암소 자율감축 필요

- 가임암소는 전월 대비 0.1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57%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 전월 대비 1세 미만 2.57% 감소, 1세~2세 0.41% 증가, 2세 이상 4.6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전 연령 모두 증가

(등급판정) 3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1%로 전월 대비 감소,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1++등급 : 25.2%, 1+등급 : 25.4%, 1등급 : 24.4%

(도매 및 산지가격) 3월 한우 도매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송아지 제외 큰 소 및 송아지 전월·전년 동월 대비 하락

- 한우 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1.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3.9% 하락

(배합사료·정액판매) 배합사료 및 정액 판매량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 3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
- 3월 정액판매량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

(쇠고기 수입) 3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16.2% 증가

-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16.2% 증가, 냉장육 수입량 21.7% 증가, 냉동육 수입량 14.6% 증가

(수급전망) 2022년 한우 사육두수 전년대비 5.0%, 평년 대비 15.1% 증가 전망, 도축두수 전년대비 7.6%, 평년 대비 12.9%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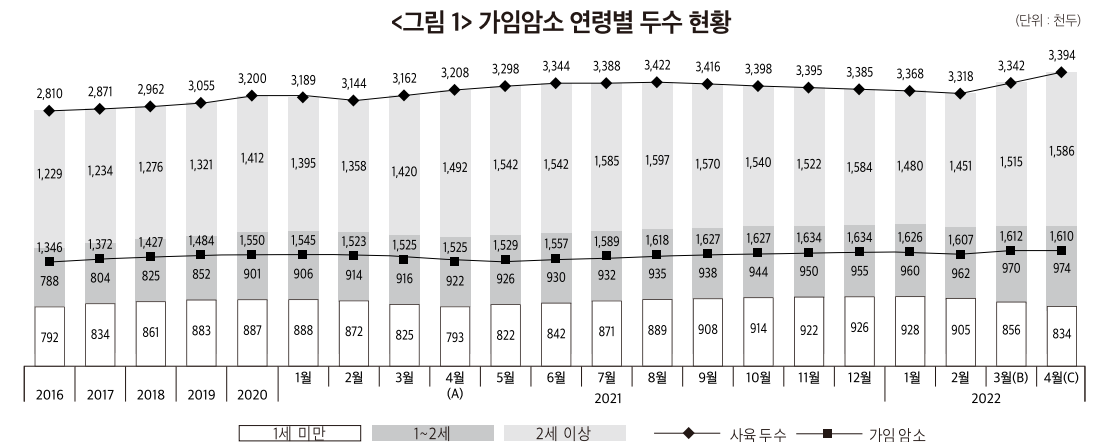
(가격전망) 2022년 한우 전체 평균 도매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1. 한우 사육동향

☑ 2022년 3월 한우 사육두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가임암소 두수 전월 대비 감소, 한우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암소 자율감축 필요 시기

- 한우 사육두수는 339만 4천 두로 전년 동월(320만 8천 두) 대비 5.80%(18만 6천 두) 증가, 전월(334만 2천 두) 대비 1.56%(5만 2천 두) 증가
- 가임암소는 161만 두로 전년 동월(152만 5천 두) 대비 5.57%(8만 5천 두) 증가, 전월(161만 2천 두) 대비 0.12%(2천 두) 감소
- 연령별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5.17%(4만 1천 두), 1~2세는 5.64%(5만 2천 두), 2세 이상은 6.30%(9만 4천 두) 증가

<그림 1> 가임암소 연령별 두수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이력관리현황'

- 사육 농장수는 89,343농장으로 전년 동월(89,295농장) 대비 0.05%(48농장) 증가, 전월(89,378농장) 대비 0.04%(35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두수는 38.0두로 전년 동월(35.9두) 대비 5.85% (2.1두) 증가, 전월(37.4두) 대비 1.60%(0.6두) 증가

<표 1> 한우 사육 현황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암소두수	송아지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16	97,498	2,810	1,346	723	792	788	1,229	28.8
2017	94,107	2,871	1,372	784	834	804	1,234	30.5
2018	92,238	2,962	1,427	899	861	825	1,276	32.1
2019	89,616	3,055	1,484	135	883	852	1,321	34.1
2020	88,879	3,200	1,550	55.5	887	901	1,412	36
2021 1월	88,933	3,189	1,545	58.2	888	906	1,395	35.9

구분		농장수	사육 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21	2월	88,860	3,144	1,523	65.1	872	914	1,358	35.4
	3월	89,003	3,162	1,525	79.7	825	916	1,420	35.5
	4월(A)	89,295	3,208	1,525	131.5	793	922	1,492	35.9
	5월	89,494	3,298	1,529	142.5	822	926	1,542	36.8
	6월	89,576	3,344	1,557	123.8	842	930	1,571	35.4
	7월	89,617	3,388	1,589	101.7	871	932	1,585	37.8
	8월	89,658	3,422	1,618	88.7	889	935	1,597	38.2
	9월	89,678	3,416	1,627	77.9	908	938	1,570	38.1
	10월	89,645	3,398	1,627	67.2	914	944	1,540	37.9
	11월	89,657	3,395	1,634	62.7	922	950	1,522	37.9
	12월	89,720	3,385	1,634	59.7	926	955	1,504	37.7
2022	1월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2월	89,378	3,318	1,607	58.2	905	962	1,451	37.1
	3월(B)	89,378	3,342	1,612	44.1	856	970	1,515	37.4
	4월(C)	89,343	3,394	1,610	87.7	834	974	1,586	38.0
증감률	전년동월(C/A)	0.05	5.80	5.57	△33.31	5.17	5.64	6.30	5.85
	전월(C/B)	△0.04	1.56	△0.12	98.87	△2.57	0.41	4.69	1.60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 3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대비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3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64,632두로 전월(38,287두) 대비 68.8%(26,345두) 증가, 전년 동월(57,079두) 대비 13.2%(7,553두) 증가
  - 성별비율은 암소 45.5%, 수소 0.7%, 거세우 53.8%
  - \* 전월대비 : 암소 2.4%p↑, 수소 -, 거세우 2.5%p↓, 거세울 0.1%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198,292	87,095	2,646	108,551	97.6
(‘21.1.~3월)	100.0	43.9	1.3	54.7	
금년누계	204,042	89,293	1,806	112,943	98.4
(‘22.1.~3월)	100.0	43.8	0.9	55.4	
전년동월	57,079	26,095	612	30,372	98.0
(‘21.3월)	100.0	45.7	1.1	53.2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월(‘22.2월)	38,287	16,488	255	21,544	98.8
	100.0	43.1	0.7	56.3	
당월(‘22.3월)	64,632	29,416	444	34,772	98.7
	100.0	45.5	0.7	53.8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 3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5.1%, 전월 대비 감소,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3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5.2%, 1+등급 25.4%, 1등급 24.4%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6.1%) 대비 1.0%p↓, 1++등급 0.8%p↓, 1+등급 0.4%p↓, 1등급 0.2%p↑
  - 전년 동월(74.7%)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4%p↑, 1++등급은 2.4%p↑, 1+등급 0.6%p↓, 1등급은 1.5%p↓
  - 전년 누계(75.1%)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0%p↑, 1++등급은 2.8%p↑, 1+등급은 0.4%p↓, 1등급은 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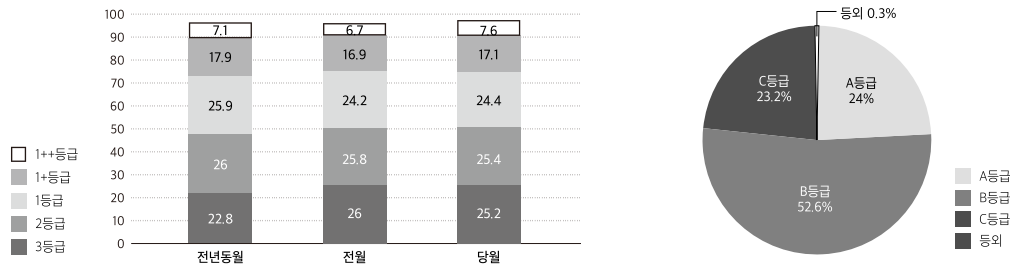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p)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1	3월(A)	57,079	22.8	26.0	25.9	74.7	17.9	7.1	24.0	52.2	0.3
	1~3월(B)	198,292	23.1	26.2	25.8	75.1	17.6	7.0	23.2	51.6	0.3
2022	‘21.2월(C)	38,287	26.0	25.8	24.2	76.1	16.9	6.7	24.6	52.3	0.4
	3월(D)	64,632	25.2	25.4	24.4	75.1	17.1	7.6	24.0	52.6	0.3
	1~3월(E)	204,042	25.9	25.8	24.4	76.1	16.7	7.0	23.6	52.4	0.2
전월대비(D-C)		26,345	△0.8	△0.4	0.2	△1.0	0.2	0.9	△0.6	0.3	△0.1
전년동월대비(D-A)		7,553	2.4	△0.6	△1.5	0.4	△0.8	0.5	0.0	0.4	△0.3
전년누계대비(E-B)		5,750	2.8	△0.4	△1.4	1.0	△0.9	0.0	0.4	0.8	△0.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2>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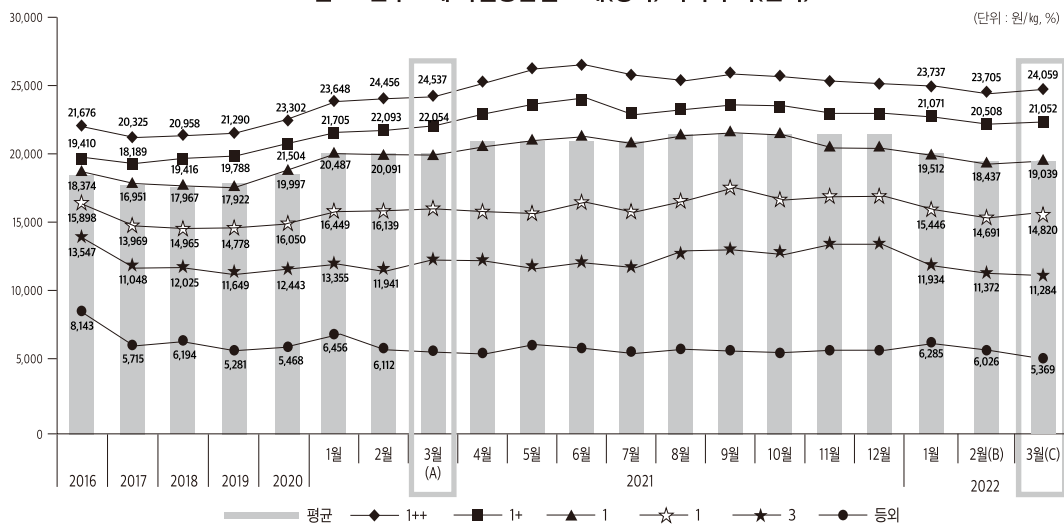


### 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 3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년 동월 대비 하락

- 3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9,039원/kg)은 전월(18,437원/kg) 대비 3.3%(602원/kg) 상승, 전년 동월(20,128원/kg) 대비 5.4%(1,089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9,623원/kg)은 전월(19,401원/kg) 대비 1.1%(222원/kg) 상승, 전년 동월(20,427원/kg) 대비 3.9%(804원/kg) 하락

<그림 3>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단위 : 원/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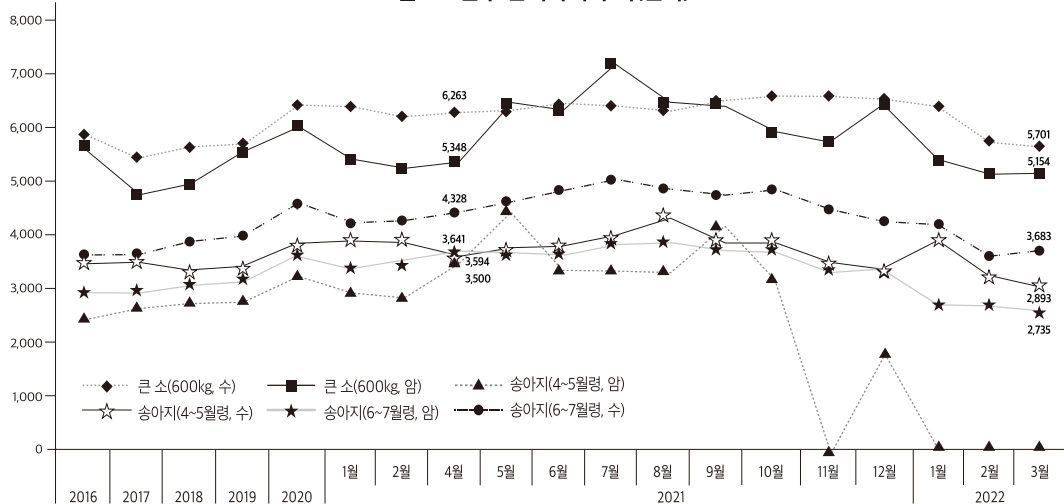
구분		1++	1+	1	2	3	등의	평균
2016		21,676	19,410	18,374	15,898	13,547	8,143	18,116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3월(A)	24,573	22,054	20,128	16,231	12,666	5,793	20,427
2022	2월(B)	23,705	20,508	18,437	14,691	11,372	6,026	19,401
	3월(C)	24,059	21,052	19,039	14,820	11,254	5,369	19,623
증감율	전년동월(C/A)	△2.1	△4.5	△5.4	△8.7	△10.9	△7.3	△3.9
	전월(C/B)	1.5	2.7	3.3	0.9	△0.8	△10.9	1.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 3월 한우 산지가격 큰소 및 송아지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하락

- 3월 큰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5,701천 원으로 전월(5,882천원) 대비 3.1%(181천원) 하락, 전년 동월(6,263천원) 대비 9.0%(562천원) 하락
  - 수소의 경우 5,154천원으로 전월(5,148천원) 대비 0.1%(6천원) 상승, 전년 동월(5,348천원) 대비 3.6%(194천원) 하락
- 3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735천원으로 전월(2,862천원) 대비 4.4%(127천원) 하락, 전년 동월(3,594천원) 대비 23.9%(859천원) 하락
  - 수송아지의 경우 3,683천원으로 전월(3,640천원) 대비 1.2%(43천원) 상승, 전년 동월(4,328천원) 대비 14.9%(645천원) 하락

<그림 4> 한우 산지가격 추이(전국)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1월	6,372	5,372	2,990	3,877	3,402	4,196
	2월	6,209	5,207	2,880	3,891	3,436	4,263
	3월(A)	6,263	5,348	3,500	3,641	3,594	4,328
2022	1월	6,026	5,370	-	3,329	2,864	3,842
	2월(B)	5,882	5,148	-	3,198	2,862	3,640
	3월(C)	5,701	5,154	-	2,893	2,735	3,683
증감율	전년동월(C/A)	△9.0	△3.6	-	△20.5	△23.9	△14.9
	전월(C/B)	△3.1	0.1	-	△9.5	△4.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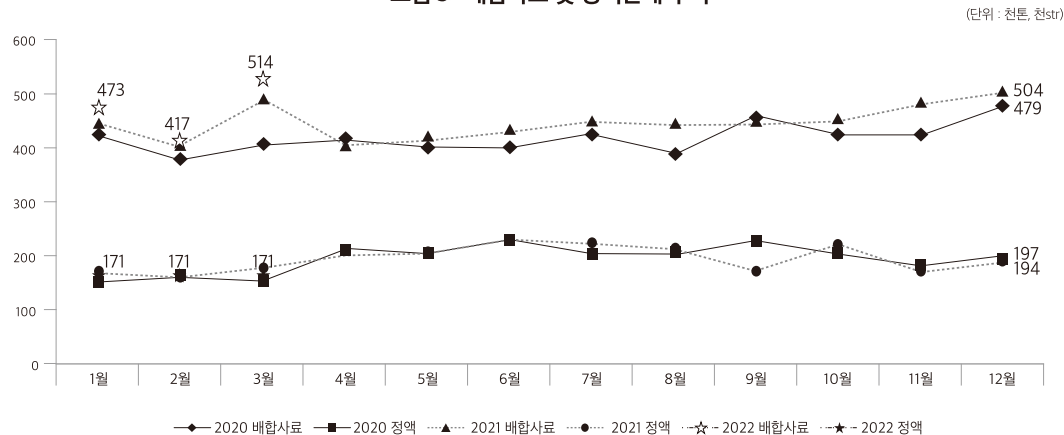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 2022년 3월 배합사료 생산량 및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 3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514천 톤으로 전년 동기(490천 톤) 대비 4.9% (24천 톤) 증가
- 3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79천 str로 전년 동기간(171천 str) 대비 4.5% (8천 str) 감소

<그림 5>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사료	2020	426	384	412	414	404	402	427	390	457	428	430	5,053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387
	2022	473	417	514									1,404
정액	2020	157	168	155	213	207	231	207	211	227	205	186	2,361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2,374
	2022	171	171	171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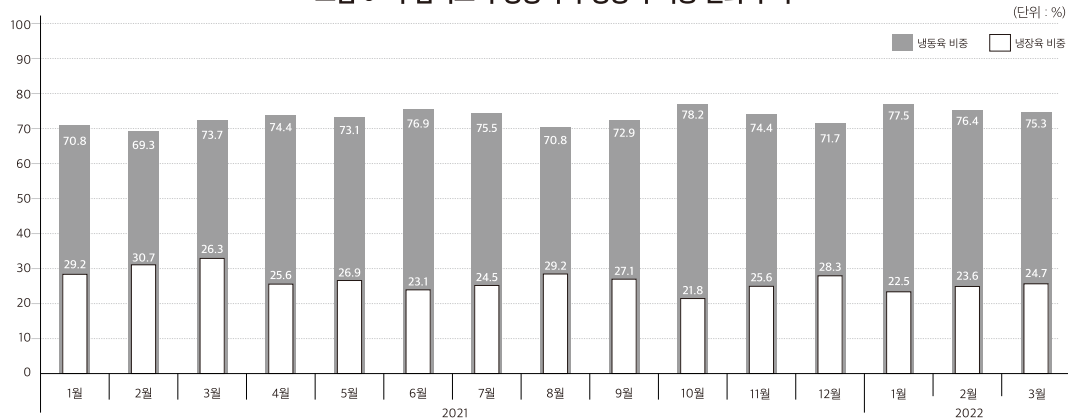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 5. 쇠고기 수입현황

### ☑ 2022년 3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16.2%(5,577톤)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3%(1,346톤) 감소

- 3월 쇠고기 수입량은 3만 9,926톤으로 전월 34,349톤 대비 16.2%(5,577톤) 증가, 전년 동월 4만 1,272톤 대비 3.3%(1,346톤) 감소
- 전월 대비 냉장쇠고기 21.7%(1,759톤) 증가하였고 냉동쇠고기 수입물량은 14.6%(3,818톤) 증가

<그림 6> 수입쇠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 3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월 대비 등심 29.2%(772톤), 양지 28.6%(1,854톤), 갈비 10.3%(1,358톤) 증가, 앞다리는 9.4%(446톤) 감소

- 3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호주산이 42.6%(3,530톤) 증가, 미국산이 4.2%(966톤) 증가, 기타 국가에서 35.1%(1,081톤) 증가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1월	34,626	24,503	10,123	11,799	5,164	4,810	3,112	9,741	17,111	14,676	2,839
	2월	26,774	18,547	8,227	10,308	4,057	3,688	2,263	6,458	18,797	5,585	2,392
	3월	41,272	30,406	10,866	13,090	7,874	5,548	4,256	10,504	21,154	16,657	3,461
	4월	37,495	27,888	9,607	13,334	5,640	4,848	3,744	9,929	20,470	13,298	3,727
	5월	39,815	29,116	10,699	12,337	5,640	5,240	4,426	12,172	20,794	16,220	2,801
	6월	36,991	28,430	8,562	12,020	5,384	4,740	3,642	11,205	23,288	11,009	2,694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21	7월	38,455	29,032	9,423	13,073	3,978	5,279	2,681	13,444	21,096	14,516	2,843
	8월	37,402	26,487	10,915	14,018	4,247	4,930	4,146	10,061	24,686	9,681	3,035
	9월	38,746	28,247	10,499	12,976	4,919	5,486	5,043	10,322	22,435	13,205	3,106
	10월	42,494	33,249	9,244	15,505	5,723	5,488	5,144	10,634	24,630	13,952	3,912
	11월	39,704	29,544	10,161	12,394	6,475	5,737	4,630	10,468	18,309	17,846	3,549
	12월	39,018	27,963	11,055	12,627	6,230	4,831	3,861	11,469	22,104	13,472	3,442
누계(A)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누계(B)	113,493	86,657	26,836	39,779	22,227	14,313	10,016	27,158	62,907	38,081	12,505
증감률	전년동기(B/A)	△3.3	△1.2	△9.1	10.8	5.9	△22.7	△19.8	△10.7	13.2	△29.0	20.3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고'

## 6. 수급 전망<sup>1</sup>

### ☑ 한우 사육 및 도축 전망

- 2022년 한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5.0%, 평년 대비 15.1% 증가 전망
  - 2022년 3월 한우 사육 마릿수 : 338만 8천 마리(전년 대비 5.7% 증가) 전망
    - \* 가임암소 161만 7천 마리(6.0% 증가), 1세 미만 101만 2천 마리(4.3% 증가)
  - 2022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 355만 5천 마리(전년 대비 5.0% 증가) 전망
    - \* 가임암소 171만 1천 마리(4.9% 증가), 1세 미만 104만 마리(6.3% 증가)

<표 8> 2022년 한우 사육 마릿수 전망

(단위 : 천 마리, %)

구분		2021년				2022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전체	마릿수	3,204	3,399	3,451	3,385	3,388	3,568	3,605	3,555
	증감률	5.5	5.4	5.5	4.9	5.7	5.0	4.5	5.0
1세 미만	마릿수	971	988	999	978	1,012	1,025	1,036	1,040
	증감률	5.3	5.4	5.5	1.6	4.3	3.7	3.7	6.3
가임암소	마릿수	1,525	1,557	1,625	1,631	1,617	1,662	1,710	1,711
	증감률	4.7	5.1	5.2	5.4	6.0	6.1	5.2	4.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2022년 3월호

주 : 2021년 12월은 통계청 「가축동향」에 발표된 잠정치이며, 추후 통계청 발표 시 증가할 수 있음

<sup>1</sup> KRE(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2년 3월 한육우 자료를 인용 및 재가공하였음

### • 한우 사육 마릿수 2023년까지 증가세 지속 전망

- 2023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 360만 9천 마리(전년 대비 1.5% 증가)
  - \* 가임암소 174만 4천 마리(1.9% 증가), 1세 미만 104만 2천 마리(전년 수준)
- 2024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 358만 마리(전년 대비 0.8% 감소) 전망
  - \* 도축 마릿수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번식 의향 점차 줄어 1세 미만, 가임암소 마릿수 감소 전망

<표 9> 한우 사육 마릿수 증기 전망

(단위 : 천 마리, %)

구분		2023년				2024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전체	마릿수	3,491	3,655	3,675	3,609	3,526	3,671	3,670	3,580
	증감률	3.0	2.4	1.9	1.5	1.0	0.4	-0.1	-0.8
1세 미만	마릿수	1,041	1,055	1,053	1,042	1,036	1,045	1,044	1,036
	증감률	2.9	3.0	1.6	0.2	-0.6	-1.0	-0.9	-0.6
가임암소	마릿수	1,674	1,693	1,748	1,744	1,696	1,695	1,734	1,711
	증감률	3.5	2.5	2.2	1.9	1.3	0.1	-0.8	-1.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2022년 3월호

주 : 2021년 12월은 통계청 「가축동향」에 발표된 잠정치이며, 추후 통계청 발표 시 증가할 수 있음

### •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으로 2022년 한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7.6%, 평년 대비 12.9% 증가 전망

- 2022년 도축 마릿수 : 85~86만 마리 수준 전망
  - \* 2022년 1분기 : 20만 1천 마리(전년 대비 1.4% 증가)
  - \* 2022년 2분기 이후 : 20만~24만 마리 내외(전년 대비 4~12% 증가)

<표 10> 한우 도축 마릿수 전망

(단위 : 천 마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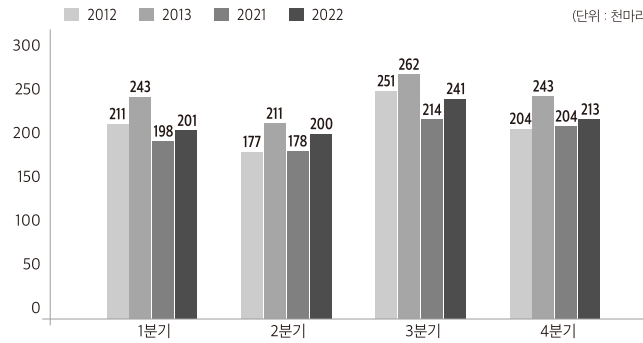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22년(A)	201.0	200.1	240.7	212.7	854.5
2021년(B)	198.3	177.8	214.5	203.7	794.3
과거 불황기	2011	141.6	166.8	213.9	718.3
	2012	210.8	177.4	250.8	842.9
	2013	243.3	211.0	262.1	959.8
증감률(A/B)	1.4	12.6	12.2	4.4	7.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2022년 3월호

주 1) 1분기는 1~#월, 2분기 4~^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2) 한우 도축 마릿수는 등급판정 마릿수 기준

### <그림 7> 한우 도축 마릿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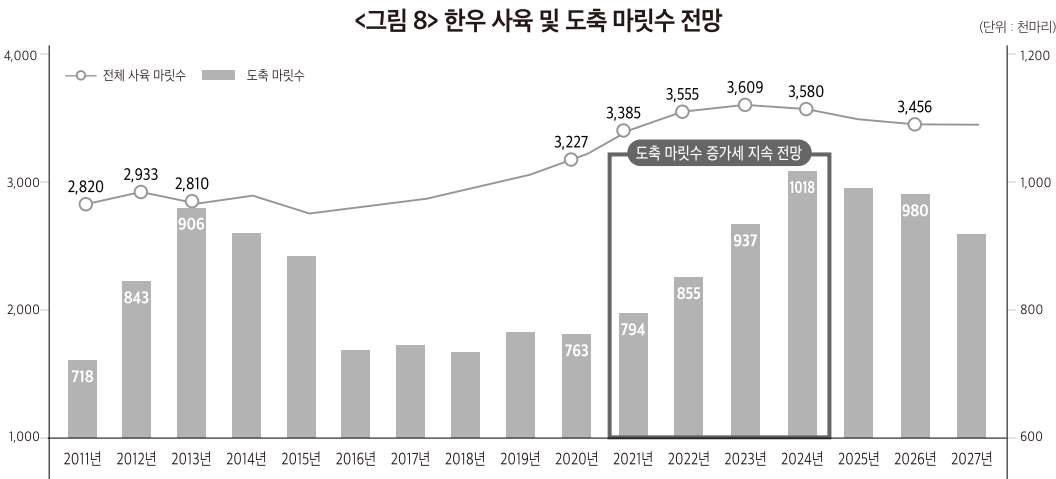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2022년 3월호

주 1) 1분기는 1~#월, 2분기 4~^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2) 한우 도축 마릿수는 등급판정 마릿수 기준

• 한우 도축 마릿수 증가세 지속 전망

- 2023년 한우 도축 마릿수 : 93만 7천 마리(전년 대비 9.6% 증가) 전망
- 2024년 한우 도축 마릿수 : 101만 8천 마리(전년 대비 8.7% 증가) 전망
- 한우 사육 증가로 도축 마릿수 지속 전망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2022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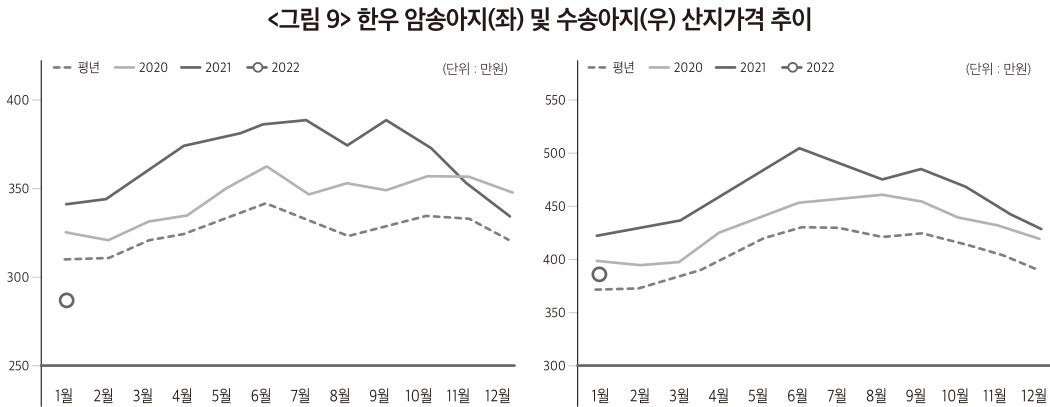
주 1) 전체 사육 마릿수는 매년 12월 1일 기준 마릿수임

2) 2022년부터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 가격 동향 및 전망

• 1월 한우 송아지 산지 평균 가격 전년보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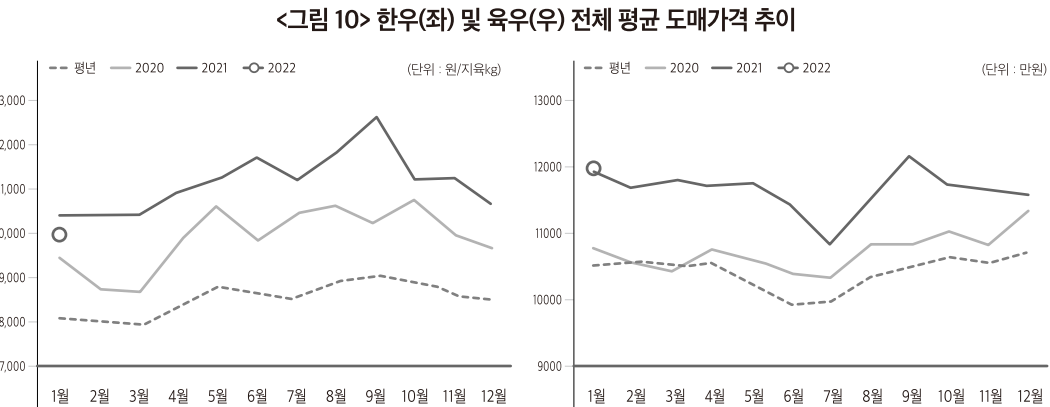
- 한우 암송아지 산지가격(6~7개월령) : 286만원(전년 대비 15.8%, 평년 대비 7.3% 하락)  
(평년) 309만원, (2021) 340만원, (2022) 286만원
- 한우 수송아지 산지가격(6~7개월령) : 384만원(전년 대비 8.4% 하락, 평년 대비 4.0% 상승)  
(평년) 369만원, (2021) 420만원, (2022) 384만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2022년 3월호

• 도축마릿수 증가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하락

- 한우 도매가격(전체 평균/1.1~2.25) : 1만 9,817원/kg(전년 대비 2.9% 하락)
  - \* 설 성수기 도축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
- 육우 도매가격(전체 평균/1.1~2.25) : 1만 1,780원/kg(전년 수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2022년 3월호

• 2022년 한우 전체 평균 도매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공급 과잉만 고려시 : 19,000~20,000원 대
- 공급 과잉 및 일상회복 고려시 : 18,000~19,000원 대

◁표 11> 한우 도매가격 전망					(단위 : 원/kg)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2년	수요지속	19,000~20,000	19,000~20,000	19,500~20,500	19,000~20,000
	수요감소	18,000~19,000	18,000~19,000	18,500~19,500	18,000~19,000
2021년		20,414	21,301	21,956	20,988
과거 불황기	2011	14,261	12,066	12,517	12,671
	2012	13,534	13,305	13,116	12,620
	2013	12,560	11,682	12,919	13,938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2022년 3월호

주 1) 1분기는 1~#월, 2분기 4~#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2) 한우 도매가격은 전체 평균임





## 일본, 사료가격 급등 대응 등 긴급 농업대책 발표

일본정부는 4월 19일, 원유·물가 급등에 대처하는 긴급대책으로 농업분야에 600억 엔(약 6천억 원)의 예산조치 방침을 공표

- 특히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보전기금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며, 쌀 및 쌀가루 판로 개척, 국산 소맥증산, 비료원료 조달선 다각화 등도 지원할 계획
-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는, 사료가격 급등 시 국가 및 사료업체 그리고 농가가 적절한 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
  - 수입곡물 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보전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 기금잔고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를 통해, 21년 한 해, 축산농가가 지원받은 금액은 총 1,857억 엔(약 1조 9천억 원)으로, 이는 20년 일본 축산업 생산액 3조 2,372억 엔(약 32조 4천억 원)의 5.7% 수준

-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에서는 생산자와 배합사료업체의 적립금에 의한 ‘통상보전’과 수입원료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가와 사료업체가 적절한 정부주도 기금에서 보전하는 ‘이상보전’이 있음
  - ‘통상보전’은 당해 사분기의 배합사료 공급가격이 직전 1년간 배합사료 공급가격 평균을 초과할 경우 지급
  - ‘이상보전’은 당해 사분기에 사용하는 6개 사료곡물의 평균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간 평균수입가격의 115%를 초과할 경우 지급

○ 21년 보전금 1,857억 엔 중, ‘통상보전’에서 913억 엔, ‘이상보전’에서 944억 엔이 각각 지급되었음

○ ‘이상보전’은 21년 1~3월기에 8년 만에 발동되어 22년 4~6월기까지 연속 발동되고 있음

자료 : 일본농업신문 (22.4.20.), 일본농림수산성

## 미국육우협회,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2022년 4월 11일, 미국 농무부(USDA)에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증가를 강조한 보고서에 이어 미국육우협회(NCBA)는 브라질산 쇠고기 신선육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 전례 없는 수입 급증은 2022년 남은 기간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에 적용되는 26.4%의 임시 관세 보호 조치가 발동
  - 수입 쇠고기의 대부분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공식화했거나, 특정 수입 할당량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됨
  - 이외 모든 수입 쇠고기는 “기타 국가” 연간 할당량 6만 5천 톤에 따라 수입되고 “기타 국가” 쿼터에 따라 판매되는 쇠고기에는 kg 당 4.4 센트의 세율이 부과되고, 쿼터를 초과하여 판매되는 쇠고기는 26.4% 관세가 부과됨

○ 2021년 브라질의 미국 수출은 131% 증가했으며, 2022년 1분기 쿼터는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5만 톤

에 의해 충족됨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보고서에 따르면 “기타 국가” 할당량이 충족됨에 따라, 2022년 남은 기간 브라질, 일본,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그리고 영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가 인상됨

NCBA는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브라질의 가축 건강 및 식품 안전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감사 거듭 촉구

- 일시적인 관세 인상이 브라질의 추가 수출을 억제할 수 있지만 브라질이 국제 동물 건강 및 식품 안전 표준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 브라질이 광우병(BSE) 사례를 적시에 보고하지 못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USDA가 브라질산 쇠고기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미국 전체 식품 공급망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

자료 : NCBA (22.4.11.)

## 뉴질랜드 기업 탄소 제로 인증 쇠고기 판매 승인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3월에 승인한 탄소 제로 앵거스 쇠고기 판매

- 60개국에 수출하는 뉴질랜드 최대의 쇠고기 생산 업체인 Silver Fern Farms는 ‘Net Carbon Zero By Nature’ 제품이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
- 뉴질랜드 농업 과학 기관인 Ag Research는 인증을 지원했으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검증 기관인 Toitū Envirocare에 의해 Net Carbon Zero가 인증되었음
- 3월 첫째 주부터 뉴욕의 75개 슈퍼마켓과 로스앤젤레스의 몇 마켓에서 ‘Net Carbon Zero By Nature’ 브랜드의 앵거스 꽃등심, 채끝, 간 쇠고기 등 다양한 부위를 판매하기 시작함

Silver Fer Farms, 2030년(2020년 기준 연도)까지 가공 배출량을 42%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웠으며, International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가입

- 탄소배출권 구매에 의존하기보다,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측정을 위한 위성 매핑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이용되고 있음
- 쇠고기 생산에서 탄소 발생의 96%가 농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2018 탄소 격리 잠재력을 맵핑하고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작, 농장의 식생을 0.5미터 이내로 측정할 수 있어 각 농장의 탄소 격리 능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됨
- 지난 몇 년 동안 1000건 이상의 농장 배출량을 추적 관리해왔으며, 배출량 관리 계획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기도 하였음

자료 : Drovers (22.4.14.)



# 한우마당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전국한우협회



2022. 05  
vol. 186

##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시시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 23권 제5호(통권 186호)

2022년 5월 1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편집 김재광

광고 이기찬

제작 팜커뮤니케이션

발송 자산포스트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2층

전화 02.525.1053 / 02.597.2377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http://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http://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